

함께하는 FTA

June 2014 vol. 25



브라질 월드컵 특집:
중남미 경제공동체 집중 분석

한·아세안 FTA 발효 7주년 성과 및 과제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2단계 대책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 축구 대회,
한국은 최초 원정 16강에 이어 더 높은 곳에 도전합니다.
황무지에서 이뤄낸 경제성장처럼, 축구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떨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합니다!



김설룡 국제원산지정보원 사원

이론·실무 겸비한 FTA 전문가로
쏙쏙 커나가는 중입니다



김설룡 씨(27)가 한양대 경제금융학과에 입학하던 2007년 3월은 한·미 FTA 협상이 막 바지로 치닫던 때로 국민적 관심이 큰 때였다. 거시경제 연구에 뜻을 품은 경제학도에게 FTA가 관심 사항에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교수님께서 말하길 ‘FTA는 앞으로 시대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봤을 때 FTA는 피해갈 수 없다고도 하셨죠. 저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꿈꾸던 때라, 막연하긴 했지만 FTA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후 김 씨는 지금까지 FTA와 연관된 삶을 살고 있다.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둔 2013년 3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주관하는 ‘FTA 실무 전문가 과정’에 지원했다. “FTA에 대해 더 잘 알아보고 싶어서”라는 것이 이유였다. 한 학기 과정을 수료하고 나자 “FTA 실무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FTA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했다. 수출기업을 방문해 업체와 시스템의 궁합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를 맡았다. 현장과 부대끼다 보니 FTA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길에 더욱 매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국제 원산지정보원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었다. 인증수출지원사업부가 새로 생기면서 전문 인력을 충원하던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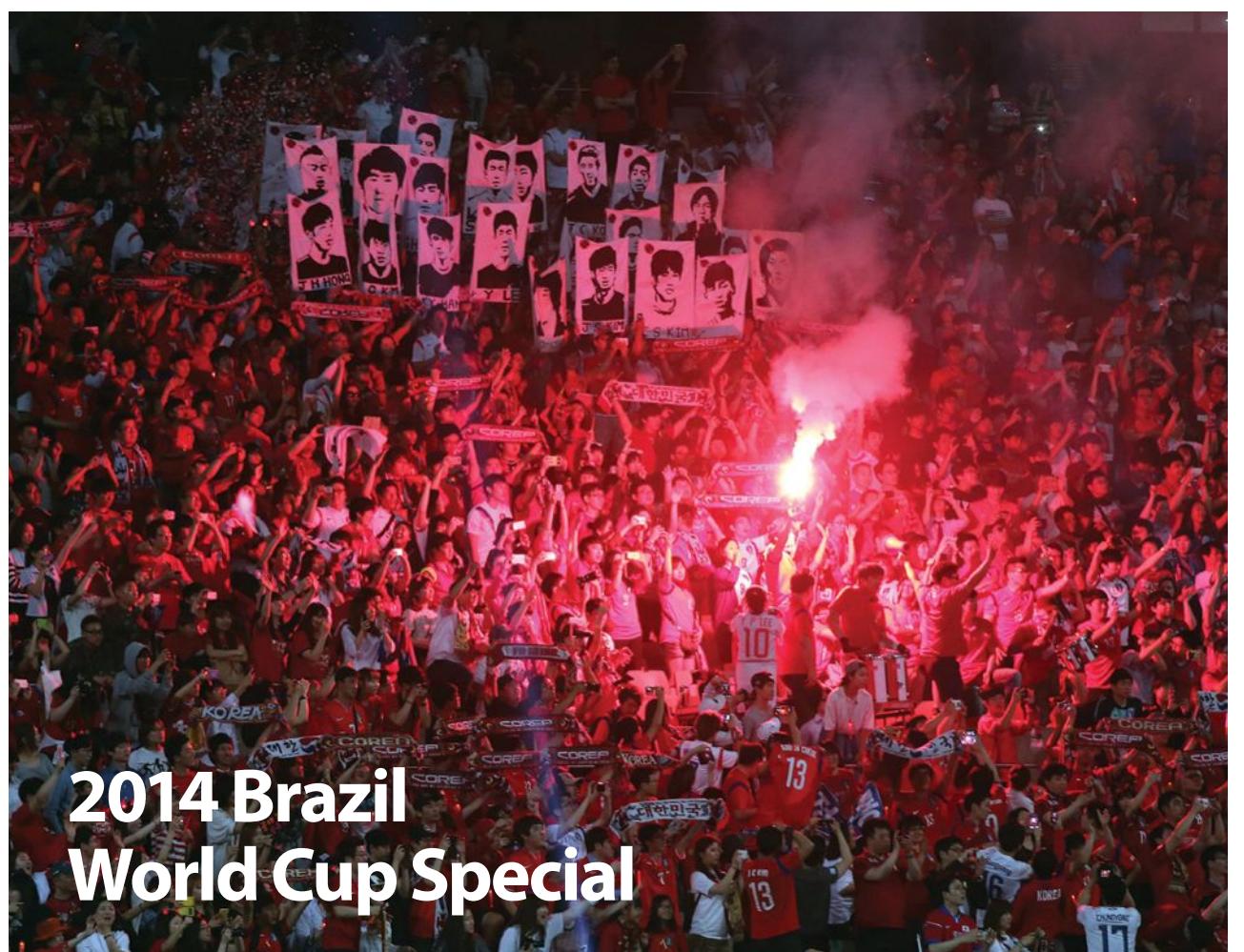
이 부서는 관세청 본부세관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한 기업이 발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아무래도 처음 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기업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업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언해주면 발급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지원업무를 한 이후 인증수출자 발급에 걸리던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 “원산지관리 시스템 업체에서 일하며 기업들이 원산지인증 수출자 신청을 위해 한 달 가까이 준비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인증수출지원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남짓 지났지만, 그 새 신청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새삼 느낀 김 씨는 앞으로 FTA를 더욱 파고들어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될 꿈을 꾸고 있다.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는 거대 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중심축 역할을 하듯 저 또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그는 현재 조금씩 해오던 중국어 배우기에 더욱 매진하는 중이다. RCEP과 TPP를 아우르려면 중국어와 영어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❶



contents

June 2014 vol. 25



2014 Brazil World Cup Special

함께하는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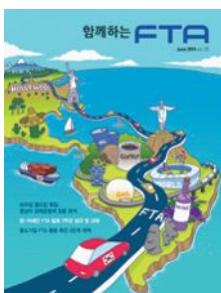
발행일 2014년 6월 10일(통권 25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COVER STORY

2014 FIFA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은 남미를 대표하는 주요 시장으로 한국은 브라질 등 5개국의 경제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마쳤습니다. MERCOSUR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와 함께 미주의 주요 시장이 한국과 자유무역지대로 연결되게 됩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01

김설룡
국제원산지정보원 사원

COVER STORY

10

한·아세안 FTA 7주년
현황과 성과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Policy Briefing

04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2단계 대책 발표

Leader's View

22

FTA와 한국의
농업 대책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Issue Focus

06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기업설명회

World Cup Special

14

재미로 알아보는
FTA 월드컵

08

중국 농식품 마케팅
전략 세미나

FTA Cartoon

09

한·중 FTA로
한국 농수산식품의
수출길이 넓어집니다!

Power Interview

18

21세기 남미 지역통합 공동체
경제통합 패러다임 변화 전망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

FTA Study

30

세계의 FTA:
⑤인도의 FTA 추진동향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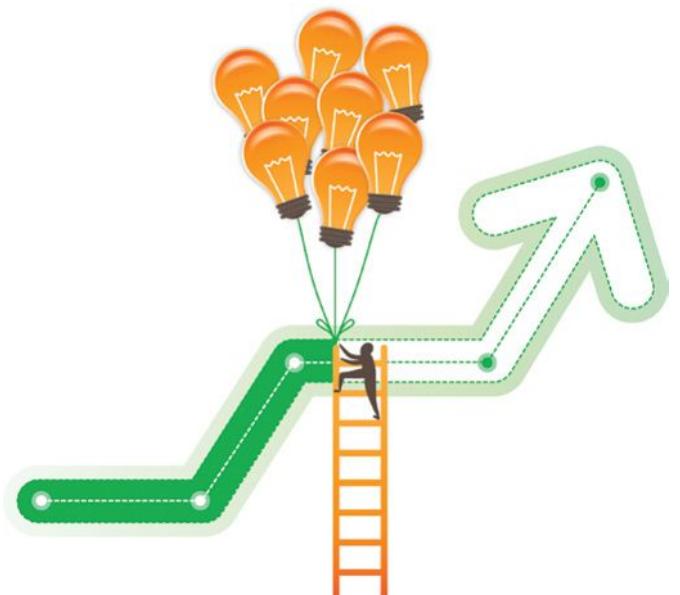
44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⑥화장품
이민선 관세사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을 위한 2단계 대책 발표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 제도 내실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FTA 성과 점검 및 활용 내실화 방안'을 보고·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마련했던 '중소기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 보완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FTA 수출 활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기업의 성공사례가 도출되는 성과를 이뤄왔다. 한·미 FTA 중소기업 수출활용률은 2012년 59.3%에서 2013년 69.2%로 9.9%p 올랐고, 한·EU FTA의 경우에는 2012년 73.5%에서 2013년 76.3%로 2.8%p 올랐다. 다만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결과 각 세부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특히 세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협력기업 부담 완화, 각종 애로 해소 노력 지속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FTA 활용 지원 정책의 성공적 안착과 품새 보완을 위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산업부 1차관 주재 'FTA 활용 촉진 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 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후속조치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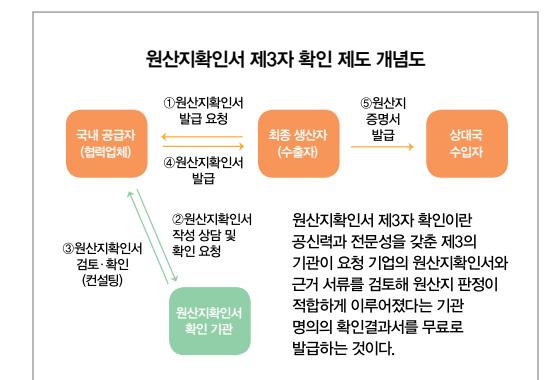
1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체계 마련

업종별(5개) 전문가 회의를 신설해 FTA 활용 애로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업종별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업종별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는 6월부터 고용노동부, 산업



부, KOTRA가 협업으로 기업 실무자에 대해 업종별(기계, 고무·화학,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가공식품 등 8개 업종)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피해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농축수산식품산업에 대해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11월)해 농축수산식품산업의 FTA 수출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2 수출초보 및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2014년 하반기 전국 실시)', '세관장 확인제도(2014년 내 6개 본부세관 실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편 'FTA 성공사례 경진 대회(10월, 산업부·관세청·중소기업청·한국무역협회 공동 주관)', 'FTA 활용 동반성장 경진대회(11월, 산업부)'로 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대기업의 협력기업 지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 및 FTA 인력양성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컨설팅이 확대(2013년 3,211건→2014년 4,000개사 이상)되며, FTA-PASS(관세청), FTA-KOREA(한국무역협회) 등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도 크게 확대(2013년 1만 2,036개사→2014년 2만 2,000개사 이상)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근무 특성, 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특성화된 고용연계형 FTA 활용 실무교육을 신설,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산업부 7개교, 관세청 7개교, 중기청 3개교). 또한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이 FTA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6월)하고, 채용박람회, 청년·중장년 인턴제도 등을 통해 맞춤연계를 지원한다.

4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와 사후검증 및

인증수출자 제도개선

FTA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FTA 선도기업(KOTRA)' 사업이 확대된다(2013년 미국, EU, 터키 등 52개사→2014년 아세안, 인도, 칠레, 페루 등 추가 80개사). 더불어 FTA 체결국 대상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활동도 강화된다. 또한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합리적으로 대응·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반복·대량 사후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로 대체하는 등 검증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범위도 확대(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수출자→수출자 및 간접수출자'로,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HS 코드 6단위→2단위'로)되며, 간접수출자도 간소화된다.

FTA 성과점검 및 내실화 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한 글로벌 무역강국 도약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환경하에서 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 실현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활용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 이용 활성화 세부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체계 마련 FTA 활용 단계별 애로 해소를 위한 틈새 보완 및 제도개선
추진과제	
정책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1380 및 인증표준 1381 연계 홍보로 제도 이용 활성화 FTA 활용 지원 종합시책 발간 FTA 컨설팅, 사후검증 지원 등 주요 세부 시책 홍보강화 FTA 포털 정보 제공 강화
업종별 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협의회 및 전문가 회의 구성·운영 업종별 FTA 활용 콘텐츠 개발 업종별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지정 확대 등 업종단체 역할 강화
초보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O 인식 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 협력기업의 FTA 활용부담 완화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지속 확대 품목분류 정보 제공 강화 인력 양성 및 고용 연계 강화
실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시장 개척 지속 지원 사후검증 지원 강화 및 통관애로 해소

5 FTA 활용 지원 제도 홍보 강화

'FTA 1380' 및 '인증표준 1381' 연계 홍보를 통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지도 제고 및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FTA 1380 전문상담인력을 확충(관세사 7명→10명, 2014년 2월)해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FTA 활용 지원 제도를 종합화한 'FTA 활용 지원 종합시책'을 발간·배포(5월)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간행물, 전광판, e-메일, SNS 홍보 등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❶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기업설명회

협상 당사자·기업 실무자 만남의 자리… TPP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뜨거워

지난해 12월 한국이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 표명'한 이후 TPP 참여국과 개별 예비 양자협의(2차)를 진행 중이다. TPP 참여 여부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경쟁 산업이 겹치는 일본 및 북미 생산기지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특성을 따지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5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TPP 기업설명회'는 협상 실무자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TPP 대책단

과장이 직접 기업 실무자들과 만났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TPP 협상 과정과 쟁점을 직접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우태희 실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FTA를 모르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TPP의 경우 가입으로 인한 손실보다 미가입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 전체 수출의 68%가 부품·소재인 한국 입장에서는 경쟁국들이 누적기준(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하

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 TPP 흐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성길 과장은 "TPP는 세계 명목 GDP의 38.9%(2012년)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경제통합 논의로 현재 12개국(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칠레·미국·호주·말레이시아·페루·베트남·캐나다·멕시코·일본)이 참여해 올해 중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외에도 태국, 대만, 필리핀, 코스타리카도 '관심 표명'을 선언해 추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TPP 가입 시의 특실에 대해 장 과장은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은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 일본 엔진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산드위치 신세다. 한

◀ 지난 5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TPP 기업설명회'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정부 실무자와 FTA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였다.

국과 일본의 수출품 경합도는 지난해 0.501인데, 이는 수출품 절반 이상이 일본과 경합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역사상 최고치다. 한국이 TPP에 불참하고 일본이 가입된 TPP가 발효 시 관세 및 엔저의 영향으로 한국제품의 가격위기 상실되고, 한국이 참여할 경우에는 일본과 경쟁이 가능한 동시에 중국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효과가 있다. TPP 참여 시에는 발효 후 10년 간 GDP가 2.5~2.6% 증가하나, 불참 시에는 0.11~0.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참여 시나리오 검토 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 것은 TPP가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장은 "TPP 발효 시 일본과 비교해 수입관세가 높은 한국의 관세인하로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본제품이라 하더라도 EU, 미국 등과 경합도가 높아 무역적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또한 개도국들이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호주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관세철폐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한국이 멕시코, 뉴질랜드 등 신규 체결국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일 무역수지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❶



정부-기업 일문일답

TPP 참여국 상당수와 개별 FTA 맺은 상태… TPP 효과는 제한적



▲ TPP로 인한 무역환경의 급변에 대해 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TPP 기업설명회의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업들의 활발한 의견 제시 및 질문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TPP보다 지금 협상 중인 한·중 FTA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2012년까지 TPP를 미국의 대중(對中) 공세정책으로 보고 비판적·유보적 입장이었으나,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종립적으로 선회했으며, 올해 4월 보아오포럼 이후 보다 개방·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 TPP 관심표명 직전, 한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 "한국이 결정할 입장"이라고 반응한 바 있다. 한·중 FTA의 경우 11차 협상(5월 26~30일 중국 쓰촨성)까지 진행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것은 한·중 FTA라고 말할 수 있다.

섬유제품의 경우 한·미 FTA처럼 원사기준(yarn forward: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가 역내산이 아니면 최종 제품이 원산지기준 만족해도 불인정)이 적용되는가?

원사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PP는 양자 FTA에 비해 원산지 기준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부가가치기준 50%역내산 비중이 50% 이상

를 적용했다면, TPP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체결국 간 역내산 사용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렇다.

TPP는 사실상 한·일 FTA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한·일 FTA 협상 당시 일본이 농수산물 개방에 소극적이었고, 비관세장벽의 완화·제거에 소극적이었는데, TPP에선 미국·호주·캐나다 등의 요구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시장개방

협상을 주시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일본자동차의 관세철폐에 민감해 20~30년간의 장기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TPP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나 내수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적으로 분석하면 TPP는 '직접적인 관세 인하' 및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수기업은 손해 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해 내수기업들이 적응이 되어 있고, 호주, 캐나다와도 FTA가 발효되면 TPP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TPP에 참여하려면 초기부터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는 뭔가?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니 협상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상태로 가입해도 되는가? 6~7년간 끌어오던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급작스레 타결된 것도 TPP 때문에 서두른 것 아닌가?

TPP는 2010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우리나라 2011년 한·EU FTA, 2012년 한·미 FTA

를 발효하는 등 양자 FTA에 집중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시장개방하고 있다.

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난해 7월 일본이 TPP에 참여한 것이 주요 변수가 됐다. 협상 내용을 모르는 것은 맞지만, 2011년 참여를 선언한 멕시코나 일본도 내용을 모르고 참여한 것은 마찬가지다. 대신 TPP가 한·미 FTA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이미 경험해본 한국

으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TPP가 목적이었다면 뉴질랜드도 벌써 타결됐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A)'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지연됐으나, 지난해 9월 호주 정권이 바뀌면서 이를 받아들여 타결된 것이다. TPP 협상을 서두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TPP가 타결 목표 시점을 계속 바꾸고 있어 우리가 이를 예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 원사 공장을 짓는 중이다. 내년에 완공되면 중국과 경쟁해야하는데, 한·중 FTA는 언제 타결될 것으로 보는가?

5월 말 중국과의 11차 협상이 이뤄진다. 9~10차 협상에서는 힘겨루기가 팽팽했다면 11차 협상에서는 쟁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 농식품 마케팅 전략 세미나

중국 시장 전망 밝아…브랜드 파워가 관건

한·중 FTA가 제11차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중국과의 FTA 무역이 가시권에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는 중이다. 지난 5월 18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중국 농식품 마케팅 전략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농식품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국 시장 전략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이 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중국 농식품 마케팅 전략 세미나'에서 장호근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01 농식품 대중국 수출 동향 및 애로 대응

전기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수출팀 차장

중국은 비슷한 수준의 GDP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소비비중이 매우 낮은 편으로 향후 내수확대 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최근 두 자녀 허용정책에 따라 유아용품 시장이 확대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프리미엄 제품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경작지가 영토의 10%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인구의 약 20%를 먹여 살려야 하므로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다른 소량 위주로 수출하다 보니 브랜드 파워를 갖추지 못해 성장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소품증 대량 수출로 브랜드 파워를 키울 필요가 있다.

02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 전략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의 곡물 수입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축산물 소비가 늘면서 사료용 곡물 수입이 덩달아 늘은 탓이다. 최근 중국 소비동향을 보면 유제품(우유·치즈), 커피, 초콜릿, 와인 등의 기호식품도 크게 늘고 있다.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다양한

식품류에서 수출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한편 한국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과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류 확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등 대중국 수출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가격경쟁력이 낮아 고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유제품, 홍삼 등 수출전략식품을 중심으로 품질과 브랜드를 키우되, 단기적으로는 가공농식품, 장기적으로는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시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03 중국의 식품 안전관리 및 대응 방안

쑨징신(孫京新) 칭다오농업대학교 교수

중국의 식품안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최근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2009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농산물이 재배되는 과정부터 감독·관리하는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라벨 표기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등 규제가 까다로워졌다. 또한 식품첨가물은 과거처럼 첨가제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들어간 첨가제 성분을 모두 쓰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는 좋아졌지만, 기업으로서는 여간 고생스런 일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FTA를 통해 식품규범의 통일을 이룬다면 더 많은 수출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❶

한·중 FTA로 한국 농수산식품의 수출길이 넓어집니다!

안종만

한·중 FTA가 가시권에 들면서 우리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출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시장은 지금 미국, 유럽 거대기업의 독무대지만, FTA가 맺어지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제품, 인삼 등 한국의 전략제품 위주로 브랜드 파워를 키운다면 한국의 농식품이 중국인들에게 더욱 사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아세안 FTA 7주년 현황과 성과

우회수출기지에서 전략적 투자처로 격상

한·아세안 FTA는 한국이 신종 거대경제권과 최초로 체결한 FTA라는 의미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한·아세안 FTA 체결 이전의 아세안은 주로 한국기업들에게 수출 시장의 의미보다는 선진국 수출을 위한 우회생산기지로의 의미가 커졌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선진국들의 저성장 기조로 중국을 비롯한 신종경제권이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세안은 기존의 우회수출기지에서 유망 성장지역으로의 의미가 더해졌으며, 투자 부문에서도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산업 투자처에서 자본기술집약 산업의 전략적 투자처로 빠르게 변모했다.

한·아세안 FTA는 최근 한국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FTA와는 달리 상품, 서비스, 투자 부문을 순차적으로 타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상품 부문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의 개발격차를 고려해 아세안 선발 6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후발 3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으로 국가군을 나누어서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을 적용했다. 한국은 HS 코드 6단위 기준 총 5,224개 품목 가운데 91.5%에 해당하는 4,742개 품목을 일반 품목으로 분류해 2010년에 관세철폐가 완료되었다.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482개 품목 중 초민감 품목은 200개로 분류했으며 이 중 40여 개 품목은 양허제와 품목으로 주로 농수산물로 구

성된다. 서비스 협정의 경우 아세안으로부터 컴퓨터,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한국 기업들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 개방을 이끌어냈다. 한국은 WTO 양허수준에서 아세안측의 개방요청을 반영한 정도로 양허 수준을 유지했다.

한·아세안 FTA 이후 대아세안 투자 대폭 증가
한·아세안 FTA 발효 당시인 2007년 한국-아세안 교역은 수출 387억 달러, 수입 331억 달러로 양자간 교역은 718억 달러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FTA 발효 직후인 2008년에는 전년대비 수출 27.2%, 수입 23.6% 증가했으며, 교역 증가율 역시 25.5%에 달했다. 한·아세안 FTA 발효 6년이 지난 2013년 교역은

2007년 대비 수출 820억 달러, 수입 533억 달러로 각각 112%, 61%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아세안 FTA 발효 이전인 2000~2006년 연평균 증가율은 수출의 경우 8.4%, 수입은 9.1%였으며 발효 이후인 2007~2013년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수출은 13.3%, 수입은 8.3%를 기록했다. 한편 한·아세안 FTA 발효 당시인 2007년의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 구성은 원자재 43.8%, 자본재 48.5%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3년에는 원자재 비중이 50.1%로 대폭 증가한 반면 자본재 비중은 42.9%로 소폭 감소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전통적으로 소비재보다는 원자재, 자본재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한·아세안 FTA 이후 아세안 현지의 생산활동을 위한 원자재 수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투자부문 또한 한·아세안 FTA 발효를 전후로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연간 5억 달러 내외에 머물렀던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한·아세안 FTA가 타결된 2006년과 발효된 2007년에 대폭 증가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일시적으로 22억 달러 규모로 감소한 바 있으나 이후 대폭 증가해 2011년에는 약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통적으로 최대 투자업종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조업(2013년 49.5%) 이외에 광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게 아세안이 전통적인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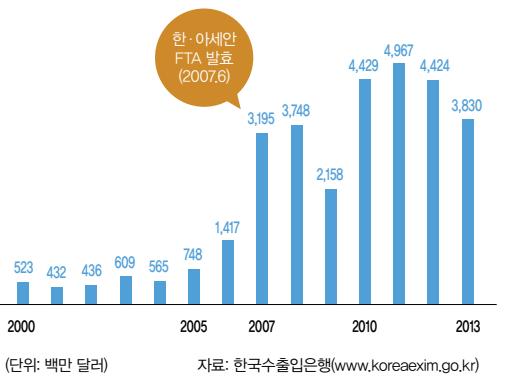
한·아세안 수출입 추이(2000년~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수출		수입		전체교역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19,728	—	17,656	—	37,384	—	2,072
2001	16,103	-18.4	15,405	-12.7	31,508	-15.7	698
2002	18,400	14.3	16,757	8.8	35,157	11.6	1,643
2003	20,253	10.1	18,458	10.2	38,711	10.1	1,795
2004	24,024	18.6	22,383	21.3	46,407	19.9	1,641
2005	27,432	14.2	26,064	16.4	53,496	15.3	1,368
2006	32,066	16.9	29,743	14.1	61,809	15.5	2,323
2007	38,749	20.8	33,110	11.3	71,859	16.3	5,639
2008	49,283	27.2	40,917	23.6	90,200	25.5	8,366
2009	40,979	-16.8	34,053	-16.8	75,032	-16.8	6,926
2010	53,195	29.8	44,099	29.5	97,294	29.7	9,096
2011	71,801	35.0	53,121	20.5	124,922	28.4	18,680
2012	79,145	10.2	51,977	-2.2	131,122	5.0	27,168
2013	81,997	3.6	53,339	2.6	135,336	3.2	28,658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이 아니라 주요 자원공급처로서의 의미가 증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제조업종 내에서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을 기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된 부문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132억 달러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특히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에 대한 투자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장비 제조업 부문에도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발효 직후 양자간 교역 및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 및 철폐로 인한 효과만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한·아세안 FTA 활용률이 수출 38.7%보다는 수입이 65.6%로 높아 향후 이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아세안 FTA가 국가 발전단계별로 관세 인하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아세안측의 관세 인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별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양자간 추가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도 향후 교역 및 투자 증대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❶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의 필요성과 현황

2015년까지 추가 자유화 방안 마련키로 합의

아세안은 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신흥경제권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동아시아 역내국과 개별적으로 양자 FTA를 완료했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 추진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6월1일 아세안과의 FTA를 체결하여 발효했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네 번째 FTA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요 교역국(또는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한·아세안 FTA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이미 우리나라에 앞서 FTA를 체결한 중·아세안 FTA에 대항하고 일본에 앞서 아세안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한·아세안 FTA의 낮은 자유화 수준 여전히 낮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가로 성장했고,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도 2007년 387억 달러에서 2013년 820억 달러로 발효 6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세안의 후발 참여국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관계가 적었던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국가들과의 교역은 눈에 띠는 성장을 기록해 우리나라의 대CLMV 국가들에 대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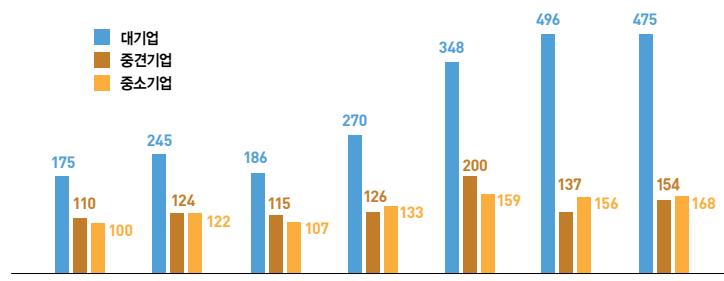
출은 2007~2013년 사이에 약 254% 증가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교역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으로 교역다변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총 수출품목에서 아세안으로 수출된 품목의 비중은 한·아세안 FTA 협상 직전인 2004년에 69.4%에서 2011년에는 75.4%로 증가했고, 수입에서 총 수입품목 대비 아세안 수입품목 비중도 같은 기간 51.7%에서 57.5%로 증가했다.

한·아세안 FTA가 외견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FTA로 정착했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여타 FTA에 비해 낮은 자유화 수준이다. 한·아세안 FTA의 상품부문 관세철폐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이며 나머지 품목은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돼 일부 관세가 인하되거나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 혹은 양허제와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90% 상품자유화 비중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의 상품자유화 비중이 98~99%에 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화 수준이며 상호대응세율이나 협정문 상의 모델리티(modality)를 활용한 실질적 양허제와 품목 등을 고려하면 관세철폐 비중이나 양허제와 품목의 비중은 협정문에 명시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 지원 늘려야
또한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이 낮다는 점도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일부 아세안 국가의 경우 FTA 이행에 대한 역량과 의지 부족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 대한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FTA 이행이라는 측면은 향후 보완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적으로는 한·아세안 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2007~2013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

기업 유형별 대아세안 수출실적 (단위: 억 달리)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출은 무려 112%나 증가했으나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 기간 대기업의 대아세안 수출은 약 172%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아세안 수출은 각각 39%와 68%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7년 대아세안 수출에서 대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였으나 2013년도 대아세안 수출에서 대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까지 증가했다.

즉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 증가에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 및 협회와 단체 등을 중심으로 FTA 활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과 아세안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제15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한·아세안 FTA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추가자유화 협상 및 협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대외적 협력과 대내적으로 FTA 활용을 위한 적절한 대책과 지원이 합치되었을 때 한·아세안 FTA의 실질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



1035

946

재미로 알아보는 FTA 월드컵

6월 13일 2014 FIFA(국제축구연맹)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된다. 7월 14일 결승전까지 한 달 동안 열리는 이 경기에서 한국은 첫 원정 8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월드컵에서 맞붙을 국가들은 대회 기간 동안에는 적수지만, 그 사이 '미운 정'까지 들면서 친근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상대국 국기, 국가, 대표선수들을 보며 그 나라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다. 월드컵 이후 한국의 경제 파트너가 될지도 모를 맞수들을 분석해 보았다.

※잉글랜드는 국가 단위인 영국으로 합산해서 계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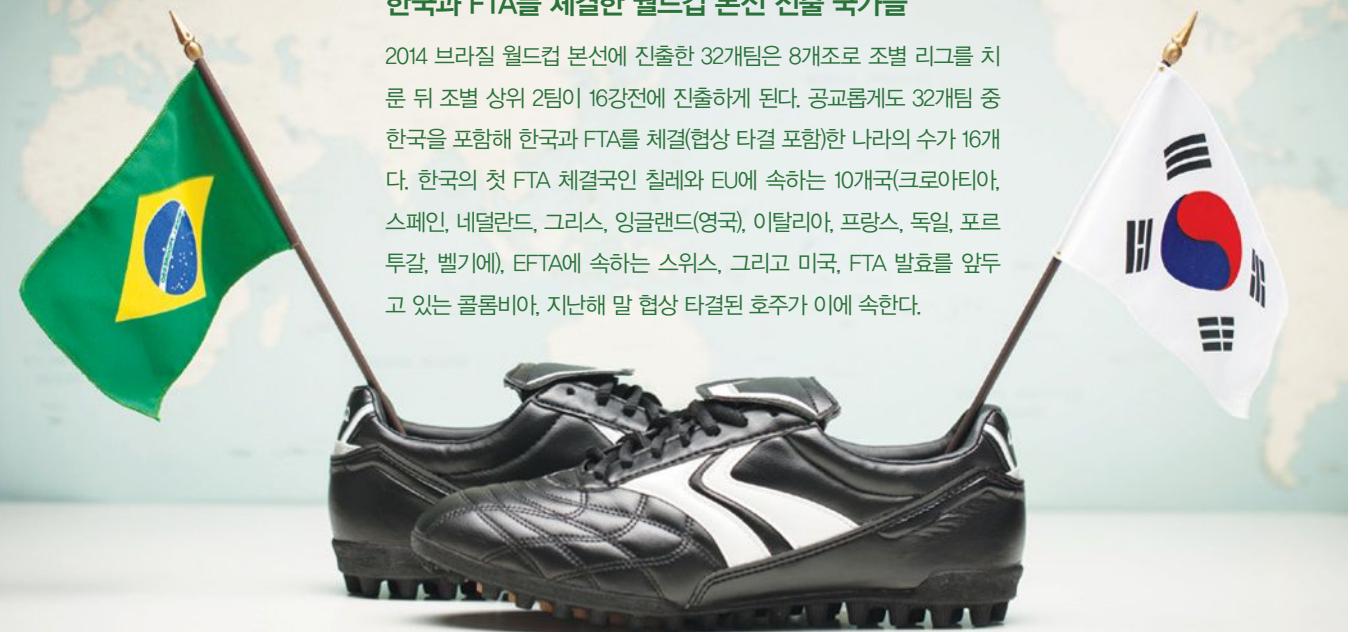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중 한국과의 교역액 16강



16

한국과 FTA를 체결한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들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팀은 8개조로 조별 리그를 치른 뒤 조별 상위 2팀이 16강전에 진출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32개팀 중 한국을 포함해 한국과 FTA를 체결(협상 타결 포함)한 나라의 수가 16개다.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 EU에 속하는 10개국(크로아티아,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잉글랜드(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벨기에), EFTA에 속하는 스위스, 그리고 미국,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콜롬비아, 지난해 말 협상 타결된 호주가 이에 속한다.



7

한국이 본선리그에서 맞붙을 H조 국가와의 인연

러시아 한국은 구소련 시절인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처음 맞붙었다. 당시 올림픽은 연령 제한이 없어 A매치로 인정됐는데, 양 팀은 0-0으로 비겼다. 러시아로 국명이 바뀐 뒤에는 지난해 11월 UAE에서 치른 평가전이 유일하다. 결과는 한국의 1-2 패. 러시아와는 현재 FTA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없으나, 한국의 10위 수출대상국이자 12위 수입대상국으로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수준이다.

알제리 지중해를 낀 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는 한국과 1985년 12월 멕시코서 열린 4개국 친선대회에서 만난 것이 유일한 A매치다. 당시 한국이 2-0으로 승리했다. 알제리는 한국의 57대 수출대상국이자, 48대 수입대상국으로 대(對)아르헨티나와의 교역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벨기에 8강 진출이 점쳐지고 있는 벨기에는 그간 한국과 세 차례 A매치를 치렀다. 한국의 역대 전적은 1무 2패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때 0-2 패,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때 1-1 무승부, 1999년 서울에서의 평가전에서는 1-2로 패했다. 벨기에가 속한 EU와 한국은 2011년 7월 FTA를 발효한 상태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역사

남미 정치적 불안 극복해내며 통합 심화 추진

1990년대 초 북미 지역에서 한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움직임이 일고 있을 때, 남미 지역에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탄생을 위한 분주한 시도가 있었다. MERCOSUR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이 출범시킨 경제통합체로, 인구 2억5,000만 명의 시장규모를 자랑한다. MERCOSUR은 체결 당시 개도국 간 남남(南南)협력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고, 그 성공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었다.



198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선언'으로 시작

국가 간 협력은 먼저 민주화 이후 각기 독자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던 브라질의 사르네이(Jose Sarney)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알폰신(Raul Alfonsin)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두 대통령은 1985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과수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이어 양국은 1986년 경제통합프로그램(Argentina-Brazil Economic Integration Program: ABEIP)을 수립해 경제통합 및 협력사업에 관한 12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1988년에는 통합협력발전조약(Treaty for Integration,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을 체결해 점진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거시경제정책의 조율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양국 간 공동시장을 창설하기로 계획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통합노력은 그 후 양국의 거시경제 불안정 등 불리한 여건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1989년 말 취임한 아르헨티나의 메넴(Carlos Menem) 대통령과 1990년 취임한 브라질의 콜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대통령이 나란히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이어 1990년 7월 양국 정상은 민영화·개방화 정

MERCOSUR는 통합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내부적 갈등요인을 극복해 나가면서 꾸준히 통합을 진전시켜 왔다



책의 촉진을 위해 양국시장통합을 1995년 1월 까지 완결 짓기로 합의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협정(Act of Buenos Aires)'에 서명했다.

1995년 1월, 4개국 역내관세 철폐로 출범

1991년 3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지역통합체 창설에 참여키로 하면서 4개국 정상은 아순시온조약(Treaty of Asuncion)을 체결했다. 이는 MERCOSUR의 모태법률로서 이전에 남미 지역에서 체결된 경제통합체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무역자유화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약은 1995년 1월을 기해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설정키로 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 밖에도 분쟁해결, 거시경제정책 조정,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당시 MERCOSUR 회원국들이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첫째, 남미 지역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 간 경쟁적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고취되었다. 둘째, 유럽의 통합 심화, NAFTA의 출현 등 세계무역질서의 지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냉전 종식 후 구공산권의 세계 경제 참여와 서유럽의 동유럽 개발 참여로 인

해 외국인투자, 기술유치 등이 동유럽 쪽으로 몰릴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남미 4개국이 MERCOSUR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안정 및 발전, 그리고 지역협력 강화라는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범 초기에 MERCOSUR는 회원국들의 초(超)인플레이션, 브라질 대통령의 부패로 인한 탄핵 정국 등 경제, 정치적 불안정으로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이후 지역경제가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외국인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정상들은 MERCOSUR 통합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관세인하 및 대외공동관세 설정을 제외하고는 아순시온조약에서 합의한 여타 협력 이슈들의 이행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세웠던 1995년까지 관세동맹을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12월 MERCOSUR 회원국들은 오루프레투의정서(Protocol of Ouro Preto)를 체결해 관세동맹을 출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의정서는 수입 품의 80% 이상에 대해 대외공동관세(CET)를 설정하고, 역외국들에 대해 공동으로 경제정책을 조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남미 지역에서 당시까지 체결된 그 어떤 경제통합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2012년 7월 베네수엘라 합류

오루프레투의정서 서명으로 MERCOSUR 통합은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서명 직후 발생한 멕시코 폐소화 위기, 1999년 브라질 금융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 요인들로 인해 MERCOSUR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통합을 심화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4년에 통상분쟁설재판소 설립, 2006년 대외세이프가드 체제 마련, 2008년 구조조정기금(FOCEM) 조성, 2009년 사회문제연구소 개소 등이 대표적이다. 2012년 7월에는 베네수엘라가 MERCOSUR에 정식으로 합류해 회원국이 총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MERCOSUR는 통합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내부적 갈등요인을 극복해 나가면서 꾸준히 통합을 진전시켜 왔다. MERCOSUR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완성도 높은 경제통합체를 탄생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내와 끈기로 지난한 세월을 버텨내며, 위기를 발판삼아 도약을 시도할 때 경제통합체는 조금씩 진보할 수 있다.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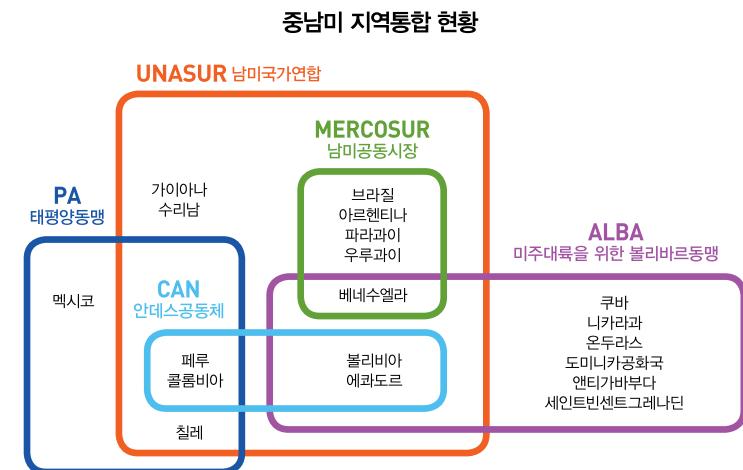


21세기 남미 지역통합 공동체 부상과 경제통합 패러다임 변화 전망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 활발...
TPP 참여 두고 갑론을박

제2차 세계대전이후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를 거치며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지역주의의 발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별로 등장한 다양한 공동체들의 부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데스공동체(CAN, 1969)', '카리브공동체(CARICOM, 1973)', '중미경제통합시스템(SICA, 1991)' 그리고 남미지역을 대표해 온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5)', 오늘날의 '미주를 향한 블리바르동맹(ALBA, 2004)', '남미국가연합(UNASUR, 2008)' 등이 존재한다. 21세기 들어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넘어서 다른 대륙들과의 개방된 지역주의를 추구해 오고 있다.

남미 경제통합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오늘날 크게 논의되고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2012년)'이 존재한다. 2014년 2월 태평양동맹(PA) 가입국들이 칠레·콜롬비아·멕시코·페루 4개국은 무역에서 관세를 92% 완전 제거하기로 합의했으며, 나머지 8%도 2015년에 점차적으로 제거해 기기로 약속했다. 태평양동맹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의 무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기존 방식과는 다른 지역통합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브라질과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저항과 반대로 20세기 후반 미국이 구상해 온 미국 주도의 전 미주대륙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확대(FTAA)의 실패, 2008년 WTO 협상에서 '도하라운드(Doha Round)'의 붕괴, 그리고 몇몇 무역 주도 경제 발전을 추구해 온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들이 추구해 온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bilateral FTA)의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다자(multilateral) 경제 동맹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연결되고 있으며, 무역과 경제 통합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은 물론 태평양-아시아 지역과의 글



로별 차원의 다자 경제 협력체 구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평양동맹', '남미공동시장' 넘어설 듯

이와는 달리 라틴아메리카의 대서양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체인 MERCOSUR, 베네수엘라 중심의 ALBA, 브라질이 리드하는 UNASUR,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동맹(CELAC, 2010) 등은 다소 다른 전략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가입국들 간의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경제 통합과 무역개방보다는, 다소 미국이 주도하

는 자유무역 지역주의에 대한 저항 혹은 반대 차원의 정치적 동맹체(특히 남미 좌파 정부들의 등장 이후)로의 정체성 선호도를 보여 오고 있다.

오늘날 새롭게 부상한 태평양동맹의 경우는 MERCOSUR와는 다르게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가장 큰 발전 장애 요인들이었던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제거 부문에서 빠른 합의를 보이면서 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가입국 간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 비자 요구 사항을 제거하고 있으며, 2011년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주도하는 주식 시



▲ 남미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올해 5월 23일 열린 남미국가연합(UNASUR) 외무장관회의 모습.

장에서 '통합된 라틴아메리카 시장(Integrated Latin American Market: MILA)' 조건을 만들어 세계의 어떤 기업이든 이를 가입국들 중에 하나라도 투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른 두 국가들에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무역 및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멕시코까지 동 조건에 합의를 한다면 이 시장의 규모는 브라질이 주도하는 대서양 축의 MERCOSUR 투자 시장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Andrew Tuck, 2014).

태평양-아시아 지역과의 경제 및 무역 강화 전략은 이미 칠레와 페루의 중국과 한국과의 FTA 체결, 칠레와 멕시코의 일본과의 자유 무역협정 협상, 콜롬비아와 한국의 FTA 체결 및 일본과의 협상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 오고 있으며, ASEAN 시장에서 새로운 경제 기회 창출은 물론 특히 중국과의 무역 협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장 주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태평양동맹은 다소 국가 주도의 그리고 기입국들 간의 서로 다른 정치적·경제적 의제 때문에 발전에 있어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동체 차원의 대외무역 협상 확대에

서 여전히 다른 대륙의 경우와는 달리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FTA를 맺고 있을 뿐이며, 유럽연합(EU)과의 FTA도 지난 15년 동안 지연시켜 오고 있다. 면르코 수르의 발전 정체성에서 남미지역을 대표하는 경제공동체 성격보다 사회 혹은 정치공동체 특징이 더 강하다는 논리는 최근의 남미 좌파 정부들의 부상과 더불어 정치적 이데올로기 따라 베네수엘라를 가입(파라과이 우파정부 거부)시킨 일련의 논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UNASUR나 CELAC 등도 미국이나 캐나다 심지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 캐나다, 멕시코, 1994) 회원국인 멕시코의 참여에도 비판적이다.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태평양동맹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민감한 관세 제거 대상 품목(농업, 직물, 의류 등)에서 남아있는 8% 완전 제거 합의에 대한 낮은 참여 가능성, 무역의 편의성을 돋기 위한 태평양동맹 공동체 사이의 교통 및 사회 인프라 구축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비용의 분담(혹은 무임승차 문제), 개별 국가들 내의 급변하는 정세 등의 문제들은 태평양동맹이 점진적으로 굳건한 경제공동체로 연착륙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일 수 있다. 특히 남미지역의 이웃 좌파 정부들(브라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의 태평양동맹과 TPP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이들 개별 태평양동맹 회원국들이 맺은 기존의 수많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스파게티볼 효과' 논쟁도 여전히 존재하며, 다소 복잡한 경제적 계산과 미래 평가가 수반되어 진행될 전망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TPP 구상에 동조하면서도 라틴아메리카 태평양동맹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 인센티브에 대한 상호 입장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태평양동맹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민감한 관세 제거 대상 품목(농업, 직물, 의류 등)에서 남아있는 8% 완전 제거 합의에 대한 낮은 참여 가능성, 무역의 편의성을 돋기 위한 태평양동맹 공동체 사이의 교통 및 사회 인프라 구축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비용의 분담(혹은 무임승차 문제), 개별 국가들 내의 급변하는 정세 등의 문제들은 태평양동맹이 점진적으로 굳건한 경제공동체로 연착륙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일 수 있다. 특히 남미지역의 이웃 좌파 정부들(브라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의 태평양동맹과 TPP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이들 개별 태평양동맹 회원국들이 맺은 기존의 수많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위해 한국이 가고 역할 해야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근엄한 것을 싫어한다. 지난 3월 31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그가 재치 있는 입담을 과시하며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툭툭 던지자 청중들의 귀가 증그해졌다. 이런 사람이라면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예상대로 그는 원내 연구진들에게 되도록 현장과의 교류를 많이 하도록 독려하는 등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Who is 김도훈 원장?

- 1957년생
- 1979년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1990년 프랑스 파리 1대학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 1979년 국제경제연구원(현 산업연구원) 입사
- 1982~2013년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동향분석실장, 국제산업협력실장, 연구본부장
- 1997년 통상산업부 장관자문관
- 1997~1999년 OECD 무역국 수석행정관
- 2013년 5월 산업연구원 원장(현)

터(1982~1984)로 바뀌었다가 1984년 산업기술정보센터가 분리되면서 산업연구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생기면서 무역·통상과 관련된 연구기능은 KIEP로 넘어가고 산업 관련 정책적 연구만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과거의 해외 전문가들이 남아 있어 여전히 해외정보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31일 컨퍼런스 때 뵈니 자루한 토론을 재밌게 잘 이끌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례를 서시면 재밌게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칠레 FTA 협상이 마무리됐을 때부터 관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일 FTA 협상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멤버로 참여했고, 한·미 FTA 때는 연구원 내 계량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영향분석을 했구요.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이라 그런지 당시 기획재정부의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연사로 전국을 다니며 FTA 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EU FTA 때는 연구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와 FTA국내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FTA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협상 개시 전에 FTA로 예상되는 산업별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가 협상을 할 때 개방 폭과 개방 속도 등 전략을 짜는 데 공식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출되면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니까요.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가장 안 알려져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그 연구결과 중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산업에 필요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조언하는 역할입니다. 셋째는 FTA 추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홍보 및 교육까지도 담당합니다.

“한·중·일 경제통합 노력이 없다면 정치적 대립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직접 경제통합을 하기는 어렵고, 한국이 중간자 역할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5월 원장 취임 이후 조직운용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구원의 전통을 지키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능상으로는 취임 후 '미래산업연구실'과 '산업통상분석실'을 신설해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려 했구요. 운영방식에서는 박사들에게 '연구실 문을 열고 우리 소통 좀 하자'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원내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대학, 정부 등 많은 외부접촉이 있어야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해외 연구원과의 교류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FTA 10주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FTA 체결국이 칠레가 된 것은 아무래도 경제규모나 지리적·산업적 영향력이 적어서 선택하게 된 것이구요. 그 직후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를 표방하며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과 협상을 했는데, 일본과의 FTA가 진전이 없자 경제통합보다는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무역효과가 큰 교역 파트너와는 거의 다 FTA를 맺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과 일본만 남았는데, 이 두 나라는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통합 의미가 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직접 경제통합을 하기는 어렵고, 한국이 중간자 역할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마찬가지구요.

한·중·일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EU를 보면 과거 전쟁을 치렀던 독일과 프랑스가 정치적 타협을 하며 경제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제통합 노력이 없다면 정치적 대립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북미·중미·남미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까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경제축 중 유럽과 미주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도 통합 논의가 필요합니다.❶



글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FTA 대비 농업지원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농산물 개방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농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FTA를 통한 농업부문 개방화의 진전은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농업에 일반적으로 부정적 영향과 고통을 안기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농식품 수출과 해외진출의 기회 역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전까지 GATT/WTO 다자체제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 추진의 후발국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면서 국내총생산의 80% 이상에 달하는 대외무역의존도 등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속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2000년대 들어 다수의 국가들과 동시에 FTA 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이렇게 FTA 체결 대상 국기를 확대해 온 결과, 2014년 6월 현재 총 9건(46개국-크로아티아 미포함 시)의 FTA가 타결되어 발효 중에 있다.

농업부문의 포괄적 지원은 원활한 FTA 추진에 필수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주요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다.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 체결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확대는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대, 시장 접근 기회의 확대 및 경제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경제부문별로 보면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비농업부문은 일반적으로 FTA 협상 타결 이후 보다 확대된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볼 것이지만 국제경쟁력이 원천적으로 떨어지는 농업부문은 피해를 볼 것이다. 특히 FTA 등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국내 농업생산 활동의 위축은 지금까지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의 유지를 통해 부수적으로 수행되어 온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 및 정치안정,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및 환경보호,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전통문화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감소 시킬 가능성이 높다.

농업부문을 대폭 개방하여 농업부문이 붕괴된다면 농업활동과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해 창출되는 위와 같은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향후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왜 일본, EU, 스위스 등 많은 선진국들과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에서도 자국의 농업보호와 활력 있는 농촌경제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농업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와 소득보상대책의 마련은 FTA 등 개방화 과정에서 나타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야만 FTA 추진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가 용이할 것이다. 특히 향후 FTA 협상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사전적 구조개선 및 농업부문을 지원해주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은 우리나라의 원활한 FTA 협상 추진에 필수적 요소이다.

특히 조만간 이루어질 한·중 FTA 협정 체결과 2014년 쌀 관세화 전환 가능성 등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FTA 협정 체결 시마다 피해를 보는 품목별로 보상을 해주는 대책마련을 지양하고 미국·EU·일본·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단계적으로 국가 농정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포괄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개방 피해 품목 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농업 피해 지원이 아닌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취약한 부분 보완하고, 경쟁품목은 기회 살려야

단기적으로는 FTA 피해보전지불제를 개편 및 강화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 EU·일본·스위스 등의 식량 순수입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현행 쌀 위주의 직불제를 주요 품목과 축종을 포함하는 포괄형 직불제 혹은 농가 단위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때 FTA 피해보전지불제는 일반적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위주로 소득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중복 수혜를 방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선진국에서와 같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농가에게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상호의무준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감으로써 농업과 농촌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 위험과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높아지는 농업경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업보험제도를 개편 및 강화해 나가야 한다.

FTA를 통한 농업부문 개방화의 진전은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농업에 일반적으로 부정적 영향과 고통을 안기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농식품 수출과 해외진출의 기회 역시 제공하고 있다. 즉 FTA 추진은 현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농업 부문에 위기임에 틀림 없지만 주요국의 농식품 시장에 국산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무튼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비록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대응 방안 마련에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이러한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❶

※필자 개인의 의견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농산물의 개방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절망적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국산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소백산 기슭에서 생산된 단고를 죽령사과를 단양과수경영자 영농조합원들이 대만에 수출하기 위해 선별작업을 하는 모습.

수출 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③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 다양한 지원 사업 선택 가능... 올해 1,743개사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 장력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청의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다. 또한 수출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인기가 높다.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1996년부터 시작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이 확대된 것이다. 당초 수출금액 100만 달러 이하 기업에게만 지원이 이뤄졌으나, 2011년 수출규모를 3단계로 나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연초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공급자(사업수행자)를 먼저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무역교육, 디자인 개발, 해외시장정보 제공 및 홍보,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다양하다. 다수의 수행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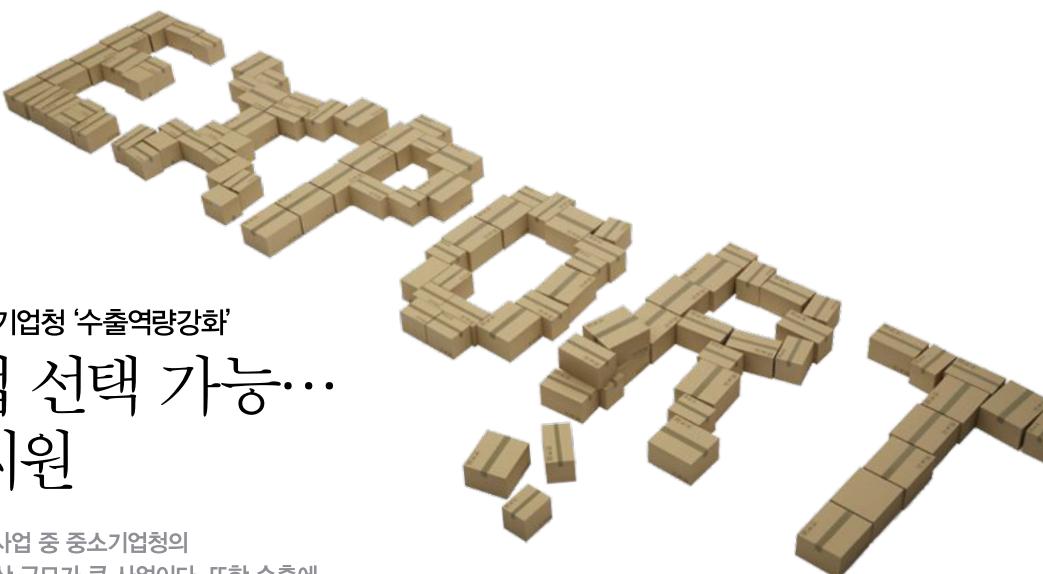
이다. 또한 일괄적으로 정해진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필요한 것만을 지원한도 내에서 기업들이 고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수출금액에 따라 수출초보기업(전년 수출 100만 달러 이하), 수

출유망기업(전년 수출 100만~500만 달러), 글로벌강소기업(전년 수출 500만~5,000만 달러)으로 나뉘며 지원한도도 각각 다르다.

사업 절차는 매년 초 공고를 낸 뒤 전국 12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참여업체가 선정된다. 중소기업청의 신재경 해외시장과 사무관은 "신청 들어온 기업은 일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폐업한 업체 등이 허위로 지원을 받는 것을 막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기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기업이 선정된 이후 지역 수출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절차, 수행사 매칭, 보조금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참여기업은 온라인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추가적으로 2회까지 사업 참여가 가능해 최대 3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역량강화 추진절차



수출 단계별 해외마케팅 지원 내용		
구분	지원한도(비율)	내용
수출초보기업 (수출 100만 달러 이하)	2,000만 원 (90%)	무역실무 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진출과정, 환리스크 관리 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비즈니스 영어 과정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수출유망기업 (수출 100만~500만 달러)	3,000만 원 (70%)	해외 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 무역 서비스 제공, 해외 신용조사, 국내 외 홍보 전문지 활용, 해외 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아리랑TV),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환변동 보험, 무역비용 규제 시뮬레이션(TCS) 국내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글로벌강소기업 (수출 500만~5,000만 달러)	5,000만 원 (50%)	무역실무 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진출과정, 환리스크 관리 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비즈니스 영어 과정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해외 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 무역 서비스 제공, 해외 신용조사, 국내 외 홍보 전문지 활용, 해외 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아리랑TV),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환변동 보험, 무역비용 규제 시뮬레이션(TCS) 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 등록 지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9,712개사를 지원했으며, 참여업체들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60.6%를 달성했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 수출증가율(8.0%)의 7.5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지난 3월 수출초보기업 1,189개사, 수출유망기업 413개사, 글로벌강소기업 141개사 등 총 1,743개사를 선정해 사업을 수행 중이다.❶

수출역량강화 사업 성공사례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 50% 이상 늘어

①인목

인공 우드케이스가 아닌 천연 나무를 접목한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인목은 2013년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종이 카탈로그 및 검색엔진 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의 우수함을 홍보하는 등 수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 및 매출액을 올렸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검색 사이트에서 어떤 키워드가 올라가는지 경쟁사를 분석해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을 통해 홍콩의 최대 소싱 전시회인 '차이나 소싱 페어'에 참여해 회사 브랜드와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을 물론 유럽 최대 공급사인 HAMA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됐다. 이런 노력을 통해 2012년 90만 달러이던 수출을 2013년 23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렸다. 이에 따라 매출액도 2012년 62억 원에서 2013년 96억 원으로 50% 이상 늘었다.



②진코스텍

순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제조업체인 진코스텍은 2010년 창업한 이후 내수에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며 유명 화장품 회사의 주문제작생산(OEM)을 해왔다. 국내 흠크리스마스 마스크팩 제품이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 간접수출되며 많은 해외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2012년부터 해외 전시회 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나 해외마케팅 비용의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3년 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국내외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던 중 2013년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13만 달러의 직접수출을 달성했고, 해당 바이어와 2014년에도 추가로 수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진코스텍은 2012년 수출실적이 없었으나, 2013년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등으로 20만 달러를 수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고, 2012년 20억 원이던 매출은 2013년 31억 원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굴삭기 어태치먼트 제조사 대모엔지니어링 인도시장 점유율 1위... 한·인도 CEPA로 현지반응 '굿'

시화공단에 위치한 대모엔지니어링은 건설장비를 만드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기운이 넘치는 회사였다. 딱딱한 공단 분위기와 달리 젊은 직원들, 특히 여성직원들의 비율이 높고, 외벽에는 제품을 장착한 거대 로봇 그림을 그려 놓아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전시회 용도로 '트랜스포머' 로봇을 살짝 카피한 철제 모형도 특이했다. 이런 근무환경에서 열정을 담아 만든 제품이니 완성도가 높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게다가 FTA로 가격경쟁력까지 더해주니 세계시장에서 잘 나가지 않을 리 없다.

굴삭기에 장착해 딱딱한 콘크리트를 부수는 '브레이커'가 이렇게 깨끗한 것은 사실 처음 봤다. 공사장을 지날 때 흙이 잔뜩 묻은 것만 봐 았기 때문이다. 크기도 엄청났다. 가까이서 보니 사람 키보다 크다. 돌덩어리를 쥐어 부술 때 쓰는 '크러셔'의 사이즈도 엄청났다. 눕혀 놓았는데도 사람 키만큼 크다. '브레이커'나 '크러셔' 같은 것들을 굴삭기 어태치먼트라고 부른다. 굴삭기의 역할이 '팔'이라면 어태치먼트는 '손'이다. 어태치먼트로 무엇을 달았는가에 따라 굴삭기가 하는 일이 천차만별이 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다.

대모엔지니어링 설립자인 이원해 회장(58)은 중학교 2학년 때 부족한 책값을 벌기 위해 진학사에서 발간한 '합격생'을 3학년 선배들에게 직접 팔아 전국 판매 2위를 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번득이는 사람이다. 이런 잠재된 사업수완은 그가 7년간 다니던 외국계 중공업 회사를 나와 1989년 굴착기 어태치먼트 제조 회사를 창업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일본 업체가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고 국내에서 만들면 불필요한 공정을 줄여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사업 규모가 큰 굴착기 대신 어태치먼트를 선택한 것은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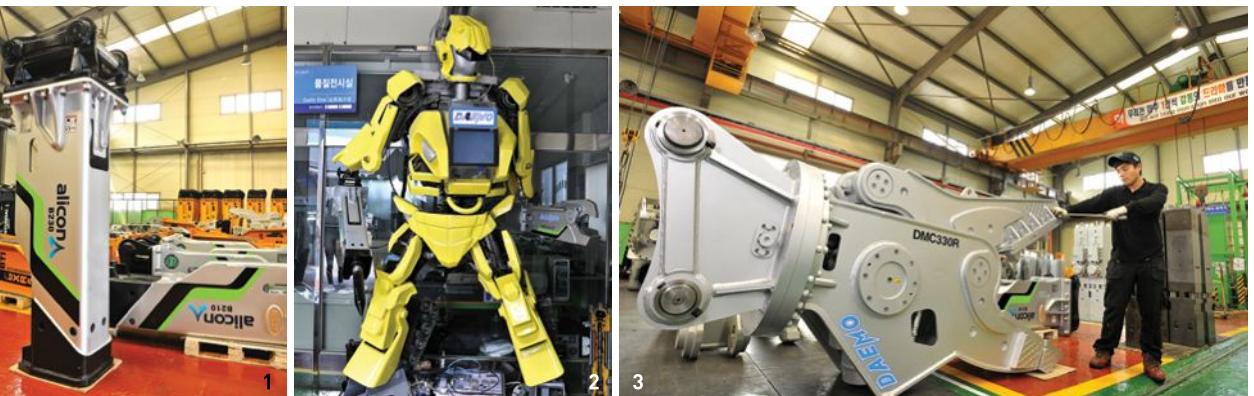
화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 수출관세 12.5%,

한·인도 CEPA로 올해 0%

사업 시작 후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기계 전시회인 뮌헨 바우마 전시회를 통해 무작정 회사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부스 하나 없이 시작한 그의 도전은 해외 전시장에서 사람들 이 줄을 서서 구경하는 수출 강소기업이 됐다. 자사 제품을 알리기 위해 로봇 모형의 팔에 어태치먼트를 부착해 전시하자 대번에 관심을 끈 것이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만들겠



1 굴삭기에 부착되는 '브레이커'는 치줄(심)을 제외하고도 2m가 넘을 정도로 크다. 2 자사 제품을 팔에 부착한 로봇 모형. 허리·팔·목이 기동되며, 해외 전시회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3 대형 '크러셔'는 눕혀 놓았음에도 사람 키만큼 될 정도로 거대하다.



강용식 사장은 "인도시장 점유율 1위인 가운데 한·인도 CEPA로 가격경쟁력까지 더해져 현지 반응이 꽤 좋았다"고 전했다.

다는 목표를 위해 1997년 연구소를 만들었다. 어태치먼트는 엄청난 충격과 진동을 받으므로 내구성은 당연히 뛰어야 하는데다, 부품 손상을 막기 위한 공터방지 기능 등 고기능을 추가하고, 또 애프터서비스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현재 세계 70개가 넘는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에서는 시장점유율 28%로 1위에 올라 있다. 1990년대 후반 인도 진출 시 인도-일본 합작사인 '타타히타치'의 협력사로 선정된 것이 비결이었다. 국내에서는 설립 초기인 1992년부터 현대중공업의 협력사로 선정되어 지금까지도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모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매출 621억 원 중 3752만 달러(약 70%)를 수출했다. 주요 수출국은 인도(수출비중 20%), 미국(9%), 유럽(4%)이다. 인도 수출비중이 높은 가운데 지

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로 가격경쟁력까지 더해졌다. 굴삭기 어태치먼트(HS 코드 8431.49호)의 기준세율 12.5%는 현재 2.5%로 인하되었고, 조만간 0%로 철폐될 예정이다.

강용식 사장은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인도 CEPA로 단가인하 효과가 생기자 현지에서 꽤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5%이던 세율이 0%로, 말레이시아에서는 10%이던 세율이 0%로 사라져 유럽과 미국 제품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FTA 활용은 해외영업팀 한 부서에서만 노력한다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재무 부서 등 전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모엔지니어링은 2011년 태스크포스팀

대모엔지니어링은 지난해 '2013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부서간 협조가 잘 이뤄져 원활하게 FTA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비결이다.

(TFT)을 구성해 FTA 활용에 나섰고, 2012년부터 FTA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대모엔지니어링 방문 때 느꼈던 특별한 인상은 직원들이 젊고, 여직원들이 많다는 점이다. 편의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산막한 공단지대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 보니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대개 숙가루가 날리는 공장에는 나이가 지긋한 남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 여자들이 많은 제조현장은 식품업 쪽이나, 대개 나이 지긋하거나 외국인노동자들이 많다. 해마다 매출이 늘고 있는 대모엔지니어링의 성장 비결은 창조성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문화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FTA 활용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부서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뤄졌을 것이다.❶

바나나맛 우유

중국·일본에서 '빅 히트', 한국 식품의 저력을 보여주다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는 1974년 첫 출시된 이래 올해로 40주년을 맞고 있다. '그깟 40년 이 대수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입맛 만큼 변덕스러운 것도 없다. 국내 식품 업계에서 한 해에 쏟아지는 신제품 수는 1,000여 개로 신제품이 사라지지 않고 3년 이상 시장에서 베틸 확률은 평균 20% 정도에 불과하다. 바나나맛 우유는 이 와중에도 40년 동안 의연하게 제 자리를 지키면서, 가공우유시장 1위로 자리매김했다. 경쟁업체들이 비슷한 콘셉트의 제품을 내놓았으나, 바나나맛 우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바나나맛 우유의 탄생 배경은 정부 정책이다. 1970년대 초반, 정부는 국내 낙농업 발전을 위해 우유 소비를 적극 장려했다. 하지만 흰 우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중들은 흰 우유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다. 1970년 우유대장균파동 발생으로 비위생적인 원유처리과정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진 탓도 있었다. 가격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 20~50% 비쌌다.

보다 못한 농림부는 1972년 3월 한 달을 '우유 마시기 달'로 정해 시판 우유값을 10~15% 인하시켰다. 서울에는 트럭 3대가 골목을 돌며 공짜 우유를 나눠주기도 했다. 한 대당 하루 2,000병, 총 5만2,000병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인식이 쉽사리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개발된 것이 바나나맛 우유다.

1974년, 우유 보급화 위해

진귀한 바나나의 맛 첨가

우유에 바나나맛(정확히는 바나나향을 첨가)을 접목한다는 아이디어는 어린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과일이 바나나였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흔히 흔한 과일 중 하나가 바나나지만 당시에는 고급과일이었다. 35개들이 배 한 상자와 바나나 한 관(3.75kg)의 가격이 비슷했다(1976년 기준).

포장용기는 원통형 대신 가운데가 튀어나온 항아리 형태로 만들어졌다. 항아리 형태가 한국인 정서에 부합해 좀 더 대중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온 도시민들이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도 항아리 모양 용기 디자인의 이유다. 소비자의 편의도 고려해 용기 입구에는 턱을 만들었다. 마시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잘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과감하게 반투명의 폴리스틸렌 소재를 이용해 제품 차별화를 노렸다. 당시 우유 용기는 대부분 유리 또는 비닐이었다. 반투명이라는 특징은 바나나의 노란색을

강조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이후 바나나맛 우유는 성공을 거듭했다. 현재 바나나맛 우유는 가공우유 시장에서 80%의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다. 가공우유 사용 최초로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2004년)한 것은 덤이다. 지난해 1,500억 원 어치의 바나나맛 우유가 팔려나갔다. 개수로는 일평균 80만 개, 연간 약 2억5,000만 개다. 5,000만 한국인이 1인당 연 5개 씩 마신 셈이다. 바나나맛 우유는 2010~2013년 기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식이기도 하다. 맥주보다도 더 많이 판매됐다. 4년 연속 1위다.

출시 이후 바나나맛 우유는 국내 유제품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바나나맛 우유를 개발한 빙그레는 든든한 캐쉬카우(cash cow: 벌이가 좋은 사업을 뜻함)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가공 업계에서 아윤이 많이 남는 분야가 가공우유 분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바나나맛 우유의 개발은 해외 과일을 한국식으로 재창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중국서 54% 판매량 증가

'한국의 맛'인 바나나맛 우유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첫 수출은 2004년 미국으로였다. 이후 캐나다, 중국, 필리핀 등의 10여 개 국가로 판매 대상국이 늘었다. 그 중에서도 바나나맛 우유에 가장 푹 빠진 곳은 중국이다. 2008년 항아리 단지 모양으로 소량 수출했으나, 이후 유통기한을 늘린 멀균팩 포장을 수출하고 있다.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최근 3년 사이의 일

이다. 국내 중국 관광객의 증가로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드라마·영화·음반을 통해 한류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바나나맛 우유를 찾으면서다. 최근 중국 내에서 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반사 효과를 누린 덕도 있다.

바나나맛 우유의 인기가 시작된 것은 상하이(上海) 지역이다. 상해 지역민들이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은 조금 비싸다. 중국 상하이에서 팔리는 바나나맛 우유의 가격은 8.5위안(1,500원)으로 국내 판매 가격(1,300원)보다 높지만, 매출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지난 2012년 중국 수출은 100억 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엔 155억 원으로 54%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빙그레의 올해 중국 수출 목표는 200억 원이다.

중국 수출용 바나나맛 우유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약간 다르다. 수출용은 항아리 모양 용기가 아닌 종이팩이며, 수출용 용기의 뒷면에는 소비자가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빨대가 부착돼 있다. 그렇다고 항아리 모양 용기에 담긴 자부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바나나맛 우유의 사진을 넣었다. 빙그레는 중국 수출용 바나나맛 우유 생산량을 늘리고 현지 유통망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일본에서도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 일본 연예인은 한국을 방문한 후 바나나맛 우유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한국에 오면 역시 이거죠, 바나나우유. 너무 맛있다"라는 멘트와 함께였다. 2012년에는 국산 유제품 중 처음으로 일본 편의점에 진열됐다.



▲ 바나나맛 우유는 1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 바나나맛 우유는 일본(왼쪽) 및 중국(오른쪽) 수출용에 네모난 포장을 적용했으나, 항아리 모양 용기의 사진을 전면에 넣어 고유성을 부각시켰다.

세계의 FTA-⑤인도의 FTA 추진동향

상품 개방에는 소극적,
서비스·투자 개방에는 적극적

인도는 12억 명의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도로의 투자에 앞장섰고, 인도 역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산업 발전을 이루며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인도의 친개방정책은 FTA 추진으로 이어졌고, 인도의 FTA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EU, 캐나다 등으로 저변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동아시아로 확대된 인도의 FTA 추진

인도의 초기 대외정책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우선으로 전개되었다. 1985년에 창설된 SAARC¹⁾(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중심국으로서 남아시아 국가들 간에 경제·정치·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경제통합을 목표로 삼고 SAPTA²⁾를 체결했다.

SAPTA는 SAARC 국가 간에 맺은 특혜무역 협정으로 FTA에 비해 개방 품목 수 및 범위가 한정적인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SAPTA는 SAFTA³⁾로 확대됐다. 서남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에 공을 들이던 인도는 1991년 개혁개방을 시작하며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인도가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동아시아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수립된 이후 20년 간 지켜진 것으로, FTA 추진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됐다.

인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서남아시아 지역의 SAFTA, 스리랑카, 부탄과의 FTA는

물론 ASEAN과도 FTA를 맺으며 외연을 확대했다. 나아가 2010년 한국, 2011년 일본과의 FTA를 발효하며 동북아시아 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등 동방정책에 입각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다.

태국 EHP 이후 상품시장 개방에 소극적
인도 FTA의 특징은 상품보다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인도정부는 초기에 추진했던 태국, 싱가포르 와의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자 상품 분야의 개방폭을 줄이고자 했다. 실제로 2003년 태국과의 FTA를 추진하며 82개 품목에 대해 조기관세자유화⁴⁾를 실시했는데,

이후 그동안 흑자를 기록하던 인도의 대(對) 태국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 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조기관세자유화 조치 이후 일본의 기업이 인도의 생산기지를 태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던 것 역시 인도 정부가 상품시장 개방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는데. 또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으로 민감품목 및 양허제외 품목의 수를 늘리고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인도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우수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 영국 등에 대한 서비스 수출 규모가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어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IT 및 금융 전문 인력, 의사, 회계사 등의 이동 및 전문직 상호 인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한 12억 인구 규모 및 풍부한 노동력 덕분에 경쟁력이 높아 투자 부문의 개방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CEPA 협정에도 인도의 FTA 추진 특징이 드러난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상품분야의 개방폭은 수입액 기준으로 85.3%에서 정해져 우리가 맺은 다른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합의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 IT 전문가, 엔지니어, 기계·통신 기술자 등 163개 분야 전문인력

발효(8건 16개국)

- 스리랑카 CEPA(2000년 3월 FTA 발효, 2008년 7월 협상 타결, 2010년 12월 서비스·투자 협상 재개)
- SAFTA(1995년 12월 SAPTA 발효, 2006년 1월 상품 협정 발효, 2010년 4월 서비스협정 서명)
- 싱가포르 CECA(2005년 8월 발효, 2010년 5월 제2차 개정협상 개시)
- 부탄 FTA(2006년 7월 상품협정 발효)
- ASEAN FTA(2010년 1월 상품협정 발효, 2013년 8월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추진)
- 한국 CEPA(2010년 1월 발효)
- 일본 CEPA(2011년 8월 발효)
- 말레이시아 CEPA(2011년 7월 발효)

협상 중

- 태국 CECA(2004년 9월 EHP 발효 후 FTA 확대 협상 중, 2014년 상반기 타결 추진)
- BIMST-EC FTA(방글라데시·부탄·인도·미얀마·네팔·스리랑카·태국의 경제협력체, 2012년 7월 제9차 협상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
- GCC FTA(2008년 제2차 협상)
- EU FTA(2015년 상반기 타결 예상)
- EFTA FTA(2013년 11월 제13차 협상)
- 뉴질랜드 CECA(2013년 7월 제9차 협상)
- 호주 CECA(2013년 5월 제5차 협상)
- 캐나다 FTA(2013년 6월 제8차 협상)
- 인도네시아 CECA(2011년 1월 협상개시 신언)
- RCEP(2015년 협상 타결 목표)
- 이스라엘 FTA(2013년 6월 제7차 협상)



의 이동에 대해 상호 합의해 우리나라 FTA 체결 사상 처음으로 인력이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인도의 FTA는 이처럼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FTA라는 용어 대신 CECA(포괄적경제협력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또는 CEPA(포괄적경제협력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호주, EU,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와의 FTA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
인도는 아시아권과의 FTA 추진이 완성 단계에 이르며, 다양한 국가와의 FTA 협상을 진

행해 나가고 있다. 가깝게는 호주, 뉴질랜드부터 멀리는 EU, 캐나다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발표한 '대외무역정책 2009-2014'에 의하면 인도는 수출증가 및 수출다변화를 목표로 삼고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양자 FTA 뿐 아니라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으로의 시선 역시 놓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새로 취임한 모디 총리가 수입의존도를 줄여 대외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이 타

결에 이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모디 총리 역시 자국 내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므로, FTA 추진이라는 거대한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❶

1)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2007년 가입) 등 8개국

2) SAPTA(SSARC 국가 간 특혜무역협정: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3) SAFTA(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South Asian Free Trade Area)

4) EHS(Early Harvest Scheme: 조기자유관세화): FTA 발효 전 양국이 합의한 소수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는 제도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⑥화장품

7월부터 유럽산 향수는 무관세, 화장품은 2.6% 수입관세 적용

한·EU FTA 및 한·미 FTA 등 FTA 체결 확대 및 인터넷 활용 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수입 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여러 FTA 혜택 품목 중의 하나가 바로 화장품일 것이다. 그러나 기초화장품과 같이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제품도 있고 관세인하에 따른 소비자기격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화장품은 FTA 체감효과가 떨어지는 품목이기도 하다.

01 향수 및 화장품의 품목분류

향수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상, 크림상 또는 고체상(스틱상 포함)으로 HS 코드 3303.00호에 분류되는데, 한·미 FTA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2014년 현재 0%를 적용받는 반면, 한·EU FTA는 4년에 걸쳐 철폐되어 올해 6월 30일까지는 2%가 적용되며 7월 1일부터 0%를 적용받게 된다. (한·미 FTA를 비롯해 한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는 발효한 시기와 상관없이

기초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중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다. 각종 로션, 크림 등을 기본으로 선크림, 페이셜 오일, 클렌징 크림(클렌징 오일)까지 포함하는 기초화장품은 HS 코드 3304.99~1000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특혜관세는 한·EU FTA의 경우 6년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4%가 적용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2.6%가 적용된다. 한·미 FTA에서는 화장품 중 가장 긴 10년간 단계 철폐로 올해에는 5.6%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초화장품에서 주의할 점은 여드름방지용 제품으로서 화장품이 주기능이고 부가적

화장품은 종류도 다양하고 이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방법도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화장품의 명칭 속에 제품의 종류와 기능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품목분류가 요구된다.

품목분류상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향수와 화장수, 입술화장용 제품, 눈화장용 제품, 손톱과 발톱에 사용되는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페이스파우더 등 분말상의 화장품, 기초화장용 제품, 메이크업용 제품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월 1일에 새로운 연차가 적용되지만, 한·EU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 등 유럽지역과의 FTA는 매년 발효일이 지나야 새로운 연차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HS 코드 3304호에 분류되는데 입술화장용 제품, 눈화장용 제품, 손톱과 발톱에 사용되는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기초화장품 및 기타 메이크업 화장품 등이 분류된다.

기초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중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다. 각종 로션, 크림 등을 기본으로 선크림, 페이셜 오일, 클렌징 크림(클렌징 오일)까지 포함하는 기초화장품은 HS 코드 3304.99~1000호에 분류되며, 특혜관세는 향수와 동일하게 2014년 현재 한·미 FTA 0%, 한·EU FTA는 6월 30일까지 2%, 7월 1일부터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초화장품에서 주의할 점은 여드름방지용 제품으로서 화장품이 주기능이고 부가적



▶ 부직포 시트에 각종 화장품 성분을 함침시켜 만든 1회용 마스크팩은 화장품을 도포한 시트이기 때문에 HS 코드 3304.99호가 아닌,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보아 HS 코드 3307.90호에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향수는 HS 코드 3303.00호에 분류되는데, 한·미 FTA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2014년 현재 0%를 적용받는 반면, 한·EU FTA는 4년에 걸쳐 철폐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0%를 적용받게 된다.



▲ 대부분의 화장품은 HS 코드 3304호에 분류되며, 한·아세안 FTA를 비롯한 한·미 FTA 및 한·EU FTA 모두 HS 코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벌크상의 원제품 화장품을 소매포장하는 단순한 가공 이외에는 모두 수출·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으로 여드름을 방지하는 제품은 기초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반면,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HS 3004호의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수입 시 약사법에 의거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메이크업 화장품은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브로 펜슬 등의 눈화장용, 립스틱과 같은

입술화장용, 기타 파운데이션 및 페이스파우더 등 대부분 색상을 가지고 사용되는 화장품으로 각각 HS 3304.10호 및 HS 3304.20호, HS 3304.99호에 분류되며, 특혜관세는 향수와 동일하게 2014년 현재 한·미 FTA 0%, 한·EU FTA는 6월 30일까지 2%, 7월 1일부터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최근 K-팝 및 한류 드라마 스타들의 인기에 힘입은 K-뷰티가 동남아시아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한국산 화장품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수출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의 특혜관세 적용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국가별 세율 확인이 필요하다.

HS 코드 3303호의 향수 및 3304호에 분류되는 화장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아세안 FTA를 비롯한 한·미 FTA 및 한·EU FTA 모두 HS 코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규정하고 있어 벌크상의 원제품 화장품을 소매포장하는 단순한 가공 이외에는 모두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02 기타 제품의 경우

얼굴용이 아닌 핸드크림, 바디크림(오일, 로션 포함) 및 바디 스크럽, 넥크림, 풋스크럽 및 뜨크림 등의 제품도 화장품으로서 HS 코드 3304.99호로 분류된다.

그러나 눈, 코, 입부분이 뚫린 얼굴모양의 부직포 시트에 수용성콜라겐, 가수분해엘라스틴, 히아루론산나트륨 등 각종 화장품 성분 및 주출물로 조제된 겔(gel)상의 화장품 성분을 함침시켜 만든 것 1매를 알루미늄 팩에 넣어 소매포장한 마스크팩은 화장품을 도포한 시트이기 때문에 HS 코드 3304.99호가 아닌,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보아 HS 코드 3307.90호에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투명한 사각 종이로서 일명 기름종이로 불리는 얼굴 피지 제거용 제품은 자체의 화장지가 분류되는 HS 코드 4818.20호에 분류된다. 세안용으로 사용되는 품 클렌저를 비롯한 바디워시, 핸드워시 제품은 액상의 피부세척용 조제품이므로 피부세척용의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코드 3401.30호에 분류된다. 다만, 이 호에는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 제품이 분류되므로 고체상의 세안용 비누는 HS 코드 3401.11호에 분류된다.

참고로 HS 코드 3307.90호와 HS 코드 4818.20호, 그리고 HS 코드 3401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두 대부분의 FTA협정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다.❶

사후검증 따라잡기—⑥CBP Form 446의 서면 질의서

CBP Form 28과 비슷해…NAFTA에서 사용

CBP Form 446이란?

한·미 FTA 원산지검증은 주로 미국 관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보내고,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보제공요청서'는 비단 FTA 원산지 검증뿐만 아니라 미국 세관의 '정산(Liquidation)' 과정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서식이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이와 별도로 NA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질의서식을 갖추고 있는데, CBP Form 446(NAFTA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이 그것이다. 본 서식은 현지검증을 진행하기 전에 수출자에게 CBP Form 446을 송부하여 수출자의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상태를 파악한 후 현지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질의서'로 알려져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해 Form 446이 직접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으나, 질의서의 내용을 Form 28에 옮겨 원산지 검증에 활용한 사례가 있어 이번 호에서는 Form 446의 NAFTA 원산지 검증 질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CBP Form 446의 주요 내용

CBP Form 446은 수출자, 물품 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재료생산자 중 CBP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한·미 FTA 검증에서 활용된다면, 질문 내용에 따라 생산자 또는 부품 생산자(협력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작성해야 할 내용은 Section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답하여 질의서에 기재하기 힘들다면 설명과 함께 별도의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❷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is shown. The front page includes sections for 'REQUEST FOR INFORMATION' and 'SECTION I: INFORMATION FOR THE PRODUCER OF MATERIAL'. The 'SECTION I' section is highlighted in yellow, containing questions about the producer's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as well as questions about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CBP Form 446(오른쪽 페이지)의 각 Section별 소명 요청 내용과
CBP Form 28(위 서식)의 1~6번의 소명 요청 내용이 동일하다.

CBP Form 446 (NAFTA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is shown. The front page includes sections for 'SECTION I: PRODUCTION PROCESS' and 'SECTION II: NON-ORIGINATING/UNKNOWN MATERIALS OR COMPONENTS'. The 'SECTION I' section is highlighted in yellow, containing questions about the producer's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as well as questions about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CBP Form 446 (NAFTA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is shown. The back page includes sections for 'SECTION III: ORIGINATING MATERIALS OR COMPONENTS' and 'SECTION IV: ADDITIONAL QUESTIONS'. The 'SECTION III' section is highlighted in yellow, containing questions about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The 'SECTION IV' section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quality of the good and the time required for delivery.

①Section 1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

검증 대상 물품 또는 재료(부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전반적인 공정 설명과 함께 제조공정도, 주요 생산설비 등을 첨부하여 대응한다.

②Section 2 비원산지/원산지 미상의 재료 또는 부품(Non-Originating/Unknown Materials or Components)

검증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비원산지 및 원산지 미상의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품목명, 규격 정보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가능하도록 6단위 이상의 HS Code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None(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③Section 3 원산지 재료 또는 부품(Originating Materials or Components)

검증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각 원산지 재료나 부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각각의 명세, 원산지 근거, 공급자의 이름·주소 또는 알고 있다면 생산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의 정보이다. 원산지에 대한 근거는 생산자 또는 제조자의 원산지 확인서, 진술서 등을 통해 증빙하거나 해당 부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증간재로 지정된 물품은 별도로 표기를 해야 하며, 증간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성하는 재료 등을 개별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재료와 관련된 내역은 소요부품명세서(BOM), 자재명세서(도형)를 통해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되 누락되는 재료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실제 원재료 구매내역 및 생산 투입내역을 함께 제공해 뒷받침한다.

④Section 4 추가질문(Additional Questions)

재료나 부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자료 유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은 재료나 부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첨부한다. 없다 하더라도 관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관리 등 사내에서 HS 코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관리 현황을 제시한다.

최소기준 적용 여부: 세번(HS코드)이 변경되지 않은 역외산 재료의 비중이 협정에서 정한 비율(가격 또는 중량) 이내임을 소명한다.

대체 가능 제품/재료와 관련하여 적용 여부 및 사용한 재고관리 기법: 동종동질의 상업적으로 대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설명과 증빙, 해당 제품/재료를 회계적으로 관리한 재고관리 기법과 관리내역을 제시한다.

거래자간 특수관계 여부: 수출자와 수입자간 특수관계 여부에 대하여 설명한다.

부기기자기준: 부기기자기준을 적용한 경우, 사용 방법(공제법, 적립법, 순원기법 등) 및 부기기자율을 기재하여 제조원기내역, 원재료 구매 및 수불내역 등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누적기준: 누적기준을 적용한 경우 각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며, 해당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⑤Section 5: 작성자 정보(Certification)

질의서 작성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곳으로 서명, 회사, 성명, 직급, 전화번호, 작성일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다.

‘보람’이란 욕심

도봉산 선인봉 뒤에 만장이 있고, 만장 뒤에 주봉(柱奉)이 있다. 생김새가 네모난 것이 오뚝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주봉에는 짧지만 어려운 암벽 코스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면 대학교 산악부 학생들이 주봉 아래 캠핑에서 일주일씩 캠핑을 하면서 암벽 등반을 훈련한다. 대학 3학년 때의 일이다. 산악부 4학년인 박명수 선배의 과외교습 아르바이트가 밤 8시에 끝나니 도봉산 아래 가게에서 9시에 만나자고 한다. 1시간 남짓이면 올라가니 그 때 가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산 밑에 잔디가 비가 얹수로 온다. 장대비다. 그런데, 명수 형이 캠핑장에 1~2학년이 스무 명은 되니 수박을 사 가자는 것이다. 2통. 좋다. 한 통은 명수 형의 큰 배낭에 넣었는데, 내 배낭은 작아서 들어가지 않는다. 할 수 없이 끈으로 어떻게 묶어서 배낭 위에 올려 놓았지만 걸을 때마다 이리 저리 쓸린다. 그래도 주봉쯤이야 어떻게든 올라가니 걱정이 없다. 비가 점점 더 거세진다. 편안한 산 초입 길을 가는데도 앞에 아무 것도 안 보인다. 그 당시에는 손전등이나 헤드램프를 쓰지 않았다. 가급적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이 산악부의 전통이기도 하였고, “아무리 캄캄해도 눈을 크게 뜨고 적응하면 보일 것은 보인다”는 선배들의 영터리 고집 때문이기도 하였다. 계곡 길로 들어서니 진짜 안 보인다. 몸은 이미 빨래통이다. 속옷까지 빗물이 줄줄 흐르는데, 내 손바닥을 멀리 뻗쳐 얼굴 쪽으로 돌려도 그 손바닥이 안 보인다. 명수 형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오른다. 다행히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흰색 바지여서 눈앞의 어른거리는 흰색만 쫓아갔다.



Who is 노익상 대표?

1947년생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을 갓 졸업한 1978년 한국리서치를 설립해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글을 쓰고 산에 오르는 '풍류를 즐기는 사람'으로 2007년 이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다.



후배들의 좋아할 거란 생각은

나만의 욕심이었음을

수박이 뒤통거려도 1~2학년 후배들이 “야. 익상이 형이 수박 갖고 왔다”고 좋아할 광경이 눈에 선하여 그냥 걸었다. 주봉 아래에는 약 20미터의 낮은 경사 바위가 있다. 평상시에는 왼쪽이 물 흐르는 계곡이고 오른 쪽은 맨 바위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오르면 된다. 근데, 이게 웬 일인가? 그 20미터의 바위가 모두 폭포로 변해버렸다. 명수 형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폭포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후배들에게 수박을 갖다 준다는 일념으로. 그들이 나에게 보낼 찬사가 그리워서 나도 폭포 속으로 머리를 들이 밀었다. 이리저리 미끄러지고, 수박은 저리 떨어지려고 하고, 눈과 코 속으로는 폭포수가 덮친다. 잡을 것도 안 보이고 디딜 곳은 아예 포기하고, 오직 희멀건 흰색 바지 뒤를 따라 미끄러지며 기어오를 뿐이다.

드디어 폭포수를 올라, 작은 샛길에 도착한 것 같다. 이제 70미터만 가면 캠핑장이다. 요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녁 먹고 소주 한 잔하고 히히덕거리며 놀고 있겠지.

도착했다. 근데, 캠핑장의 텐트에는 불빛이 없다. ‘어쭈 이것들이 벌써 자? 내가 수박 갖고 왔는데.’ 아무 텐트나 잡아서 “암마, 일어나” 하고 밖에서 발길질을 하려는 찰나에, 명수 형이 “익상아 빈 텐트 있나 찾아 봐라!” 한다. 이런, 빈 텐트가 있긴 한데, 천막 속에 물이 흥건하다. “아니, 형, 수박은요?” “아침에 애들이 먹겠지.” 허탈. 또 허탈.

그 때 보람이란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

인지 깨달았다. 후배들로부터 칭송 받는 것이나 혼자의 욕심이란 것을 느꼈다. 내가 수박을 가져온 것은 가져온 것이고 후배들이 자는 것은 자는 것이다. 그들을 깨워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이기적이란 행동임을 배웠다. 그 때 그냥 잠을 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잘 한 것 같다. 앞으로도 그래야지. 그 후 몇 년 지난 1969년 박명수 형은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눈사태에 눌려 죽었다. 그 명수 형 생각이 난다.

성취감은 혼자만의 것이지만,

즐거움은 나누는 것

우리 선조는 사람의 감정을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기쁨 희(喜), 노여움 로(怒), 슬픔 애(哀), 즐거움 락(樂). 기쁨은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기울여 그것을 성취하였을 때의 감정이다.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 직장에서의 승진, 사모하던 여학생으로부터 만나자는 첫 데이트 소식, 8,000미터 봉우리를 올라섬, 드디어 수박을 갖고 가서 후배들에게 자랑하는 것 등등이다. 이런 기쁨은 대개 혼자 누린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하기 어렵다. 반면, 즐거움은 그냥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다. 목표도 없다. 과거의 노력도 없다. 미래도 없다. 가까운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못 부르는 노래를 신나게 부를 때,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가? 그냥 현재뿐이다. 거기에 무슨 성취감이 있는가? 그냥 친구들이 좋을 뿐이다. 대개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많다. 지금도 네 살, 다섯 살 된 어린아이의 웃음에서 그런 즐거움을

느낀다.

성취감은 많은 경우,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승리의 쾌락이다. 경기이던, 사회생활이던, 학교생활이던 경쟁에서 이겼을 때의 감정이다. 그러나 즐거움은 혼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다. 누군가와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다. 즐거움에는 경쟁이 없다. 친구들과 즐거운 때는 많다. 가족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으면 행복한 가정일 것이다. 그 수박을 배달하고 후배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은 “나만의 기쁨”을 욕심 낸 것이다. 그들이 곤하 자도록 그냥 두고, 명수 형과 같이 씩 웃을 때 그것은 “즐거움”인 것이다.

“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보다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지 않느냐?” 어느 선인의 말이다. 강당을 꽉 메운 학생들이 내 강당이 끝날 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좋다.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그 중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나와 친구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제자를 만나 같은 주제로 연구하고 토론하면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고객 회사 임원회의에 가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나면 박수를 받는다. 칭찬 받는 것 같아서 좋지만 그런 박수는 어떤 때는 독이다. 박수보다 질문이 더 쓸모 있다. 질문과 토론을 거치면서 그 임원 회의에서 새로운 조사 및 컨설팅 프로젝트 용역을 요청 받는 것이 회사 사원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회사에 돌아와서 사원들과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그들에게 좋은 일감을 갖고 왔기 때문이다.

돈과 명예 중에서 우리는 돈을 둘다 보라하고 명예를 승상하였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를 잡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죽으면 가족만 불쌍하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먼지라도 잡고자 하여야 하지 않을까? 명예는 대개 혼자 누린다. 그러나 돈은 나누어 쓸 수 있다. 그래서 명예는 성취욕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돈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닌가? ☎



대학로는 젊은 연극배우들과 관객들이 뜨거운 열정을
직접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곳이다.
대극장 공연 위주인 비싼 뮤지컬 공연과 달리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배우의 숨소리까지 느껴지는
소극장 연극을 맛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를 본
독자 김나영 씨(동덕여대 영어과 08학번)가
네 명의 주연 배우들을 만나
'연극이 끝난 후(노래 제목)'의
여운을 나누었다.

달달한 사랑의 전도사들을 만나다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짹사랑하는 남자와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여주인공과 이를 도와주는 연애컨설팅 회사 직원들이 벌이는 요절복통 사랑 만들기 작전을 다루고 있다. 초반 배우들의 코믹 연기에 배꼽을 잡다가 후반부에서 애잔한 사랑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다. 주말 관객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젊은 커플들에게는 필수 데이트 코스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8월 '스틸 하트'로 시작한 이후 올해 1월 지금의 제목으로 리뉴얼한 뒤,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지방공연 요청이 들어와 지금은 서울, 수원, 대구에서 공연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원 공연이 끝나는 6월부터는 부산에서 공연이 시작된다. 등장하는 인물은 총 4명으로, 서울 2팀(더블 배역) 포함 총 4팀(16명)의 배우들이 같은 공연을 하고 있다. 독자 김나영 씨가 만난 배우들은 지난 5월 25일(일) 오후 5시 공연에 출연했던 팀이다.

김나영 안녕하세요. 공연은 정말 재밌었어요.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뵐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을 본 기분이네요. 배우님들은 공연에 언제부터 참여하게 되셨나요?

홍바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셨다니 저희도 뿌듯하네요. 전 연출가님과 전작을 같이 한 인연으로 권유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이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권태진 저도 연출가님과 예전에 작품을 같이 한 인연으로 지난해 8월 초연 때부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재웅 전 올해 5월부터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디션을 통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허인범 저도 권태진 씨처럼 지난해 8월 시작 때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출가님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구요.

김나영 공연 보는 중간에 줄거리가 조금 예상이 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뻔하지 않은 결말로 마무리되어 좋았습니다. 배우님들도 처음 스토리를 봤을 때 재미있었나요?

홍바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다른 반전엔 저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처음 대본만 봤을 땐 완전히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1차팀이 공연을 하는 것을 보니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있는 공연을 보고 다시 대본을 보니 뒤늦게 알게 된 게 더 많아요. 스토리의 매력 때문인지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지고, 아직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권태진 누가 봐도 스토리의 반전이 주는 재미는 대단하죠. 또한 등장인물 4명이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배우에겐 매력이에요. 4명 다 살아 있는 캐릭터가 분명해서 연기의 호흡이 맞아 떨어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김나영 공연 때마다 4명의 배우들이 한두 명씩 바꿔가며 무대에 서는데요, 이런 경우 호흡을 맞추는 데 문제는 없나요?

한재웅 처음 참여하는 배우라도 리허설을 통해 어느 정도 다 맞추기 때문에 배우가 바뀌어도 딱히 힘든 것은 없습니다. 대신 배우만의 색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지죠. 어떤 배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연극의 매력이죠.

김나영 여주인공이 코믹 연기와 애잔한 감정 연기를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홍바다 9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극과 극의 감정을 오가는 게 쉽진 않아요. 어떤 순간에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몰입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물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나영 고대로 역으로 공연 내내 웃음바다를 만들어주셨는데요, 혹시 개그맨 지망생 아니셨나요? 그리고 관객을 끌어들이는 장면들에선 순간적인 대처가 중요한데, 이는 순발력이 좋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습에서 나오는 건가요?

허인범 제가 안양예고를 나왔는데요, 입학 전까진 저도 개그맨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학하고 나니 저보다 웃긴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공연기간 2013년 8월 30일부터(오픈 런)
장소 대학로 유비누리 앱질전용관(서울)
지방 공연은 해당 홈페이지 참고.

은 거예요. 전국의 끼 넘치는 애들은 다 온 것 같더군요. 그래서 개그맨은 접고 연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연기가 더 쉽다는 뜻은 아니고요. 순발력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레퍼토리도 있지만 관객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80% 이상은 애드립이라고 봐야겠죠.

김나영 배우들이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면서 대사를 해야 하는데, 9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태진 집중력은 무대 올라가는 순간 결정이 나는 듯해요. 처음 집중이 흐트러지면 힘들어지지만, 조명이 켜진 후 집중이 잘 되면 그 이후는 물 흐르듯 잘 흘러가게 됩니다. (무대에선 관객 얼굴을 향하게 되는데) 관객 얼굴이 눈에 들어오면, 상대 배우의 얼굴과 대사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재웅 저 역시 첫 등장이 중요합니다. 첫 출발에서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느냐가 중요하구요, 관객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자기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김나영 마지막으로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를 20자평으로 표현하시다면?

홍바다 사랑에 대한 설렘을 새로 느끼게 해줄 공연.

권태진 생각이 깊어지면 용기는 사라진다. 용기 있게 다가가라.

허인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어서 내 걸로 만드는 연극.

한재웅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연애 뺑 터지는 공연.❶

이은철 백련도검 도검장

‘칼’이 아닌 ‘역사’를 만드는 장인

1, 2, 3 이은철 도검장은 국내 유일 '고대제철 대한민국 기능전승자(노동부 지정)'다. 4 참숯으로 불을 지핀 화로에서 쇠를 녹이기 위해 풀무질을 한다. 5 녹은 쇠를 두드리며 재련하고 늘어난 쇠를 다시 접은 뒤 녹여 불이기를 반복한다. 6 고대식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괴련철과 앞의 제련과정을 거친 백련강. 작은 깃덩이에 불과하지만, 역사적 가치를 지닌 백련강의 가치는 값으로 매기기 어렵다.



이은철 백련도검 도검장(58)은 '칼에 미친 사람'이다. 30년 가까이 전통도검을 연구하면서 도검(刀劍)의 본질을 파헤쳤다. 그렇게 다다른 결론은 전통 방식의 재현이다. 단순히 흉내 낸 것이 아니라, 현대적 산업기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철광석을 캐는 것부터 오로지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진짜 고대의 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가 만든 칼들은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한움막. '소화(昭和: 1926년 시작된 일본의 연호) 12년(1937년)'이라고 쓰인 상량문이 슬쩍 보인다. 가운데 이은철 도검장이 불붙은 숯더미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깃덩어리를 깨낸다. 이를 땅으로 내려치자 채 식지 않은 깃기루가 천지사방으로 튀긴다. 전통 도검을 고대의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 중의 하나를 시연한 것이다. 실제의 전통 도검은 만드는 데 1달 넘게 걸리므로 짧은 시간에 모두 보여줄 수 없어 '단련'

이라는 과정만을 잠시 보여준 것이다. 늘 조선 시대 대장장이 복장을 하고 다니는 이 도검장의 팔은 이렇게 튀긴 뜨거운 깃기루로 인한 상처투성이었다. 이 광경만을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3만 겹 접은 깃덩이 현대 합금강만큼 강해
전통도검을 만드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전통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전국에 이 도검장 한 명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의 방식이란, 철광석을 산에서 직접 캐어 참숯으로 가열해 철(괴련철)을 만드는 고대 방식을 말한다. 즉 대부분의 전통도검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철을 가져온 뒤 두들겨 만들지만, 이 도검장은 그 철까지 직접 짐마당에서 만드는 것이다. '제빵사가 빵만 잘 만들면 되지 농사까지 지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프랑스 제빵사가 16세기의 맛을 재현하려면 16세기 방식으로 밀까지 재배해야만 가능하다. 유전학적으로 개량되지 않은 종자를 심어야 하

고, 농기계 대신 곡괭이로 놀을 갈아야 하고,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만들어 써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라도 현대적 방식이 가미되면 모든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 도검장은 자신이 2000년 전 철기시대의 사람이라고 죄면을 건 듯 모든 과정을 재현해냈다. 사업성이 없어 폐광된 철광산에서 남은 철을 손으로 캐고, 전통가마에서 구운 숯을 구하고, 진흙으로 만든 흙벽돌을 가져다 직접 용광로를 만들어 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나온 철이 괴련철이다. 이 괴련철 덩어리들을 층층이 쌓아 불에 녹여 두드리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조직이 치밀해진다. 이렇게 나온 깃조각을 두드려 평고, 접어서 달군 뒤 다시 두드리기를 14~15회 반복하면 비로소 칼을 만들 수 있는 백련강(百鍊鋼)이 된다. 15회 접으면 처음의 철은 3만 2,768겹(2의 15제곱)이 된다. 이 도검장은 "백련강을 지금의 기술로 만든 합금강과 강도를 비교해 보니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3만 겹으로 접

한 칼은 나이테와 같은 독특한 무늬를 지니게 된다. 칼마다 각기 다른 지문을 지니게 되어, 눈썰미가 좋은 칼 주인은 자신만의 칼을 알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도검장이 수백년 된 유물칼을 솟돌로 갈아놓은 것을 보면 이런 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련강은 다시 담금질을 통해 칼의 형태를 갖추게 되며, 이후 표면이 굵은 솟돌부터 가는 솟돌 순서로 갈아 광택을 내면 완성된다. 이렇게 고생스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1년 동안 만드는 칼의 개수는 4~5개에 불과하다. "고려청자 장인이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을 깨듯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칼은 다시 녹여서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수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칼의 값을 매기기는 사실 불가능하다. 소문을 듣고 팔라며 찾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이 도검장은 개인에게 칼을 팔지는 않는다. 이것들이 모두 사라지면 자신이 지금껏 만들어 온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 용도로 박물관에 일

부 판매하기는 했는데, 거의 재료비만 받았는데도 도검 한 자루 당 웬만한 승용차 가격을 넘어섰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 도검이다. 이걸 알고 TV 사극을 보면 칼이 남달라 보인다. (칼은 그렇게 함부로 땅에다 내던져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철기시대 제조방식 재현한 유일한 장인
고대 방식의 철 재현은 사실 이 도검장의 인생과 바꾼 성취라고 해야 할 듯하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을 직접 문현을 통해 찾아내야 하고, 또 그 재료들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고된 노동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다. 화가지망생이었던 이 도검장은 1986년 전통도검에 관심을 가진 이후 자료조사와 고증을 거쳐 18년 만인 2004년 고대 방식으로 철을 만드는 것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2009년 노동부로부터 '고대제철' 대한민국 기능전승자로 인정받은 뒤 그는 철 문화가 가장

일찍 발달한 지역인 김해(가야문화축제), 울산(쇠부리축제), 고령(대가야축제) 등으로부터 매년 초청받아 고대방식 철 제조를 시연하고 있다. 현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한 심사를 받는 중이다.

어느 정도 인생을 바친 도전을 이뤄냈지만, 이 도검장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전승자가 없다는 것이다. 본인은 한 평생 칼에 매달릴 정도의 깊은 애정으로 생활고를 견뎠지만, 일반인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돈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 올해는 도검류 제조·판매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고급 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을 해 볼 요량이다. 이 도검장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고대 방식으로 나온 철로 만든 칼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의 욕심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자신이 이뤄낸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있는 듯했다.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❶



기계, 섬유, 농수산물 등 8개 업종별 FTA 활용 실무자 교육 실시 중소기업 FTA 활용 실무전문인력 본격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FTA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FTA 활용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맞춤형 정보가 필요한 중소 수출업체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FTA 활용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범식이 5월 15일 임피리얼 팰리스서울호텔에서 개최됐다. 출범식에는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책관을 비롯해 교육 참여 희망 협약기업 CEO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만 대책관은 "기업들이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뿐 아니라 상담, 컨설팅 등 기존 FTA 활용 촉진 사업을 업종별로 전문화하는 등 FTA 활용 지원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총 20회 실시되는 이 사업은 기계, 고무·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가공식품 등 8개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FTA 활용 전문가 500여 명을 양성하고 향후 대상 업종과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교육 이수자가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은 KOTRA(코트라) 주관으로 주로 서울과 대전의 KOTRA 글로벌연구원에서 이뤄지게 되며, 섬유, 기계 등 동일 업종 기업들의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1일 8시간씩 3일간(총 24시간)으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OTRA(02-3497-1195)로 문의하면 된다.

한·중 FTA 제11차 협상 개최

한·중 FTA 제11차 협상이 5월 26~30일(5일간) 중국(쓰촨성 메이산)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중국측은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 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지난해 12월 1차 양허안(offer) 교환 이후 이번 협상 시 개선된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양측의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한 2차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 했다(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많은 진전).

서비스·투자분야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양측이 처음으로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규범·협력분야는 협정문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번 협상에서는 경쟁분야 챕터에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전자상 거래분야도 일부 기술적인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협력분야에서 도 양측은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차기 제12차 협상을 7월경 한국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크로아티아 관련 한·EU FTA 추가의정서 잠정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2013년 7월 1일)에 따른 한·EU FTA 추가의정서가 5월 26일 잠정 발효되며, 지난해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대(對)크로아티아 수출품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조약에 의해 이미 2013년 7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왔다.

수입자는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우리 세관에 사후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우리 관세청(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에 문의하면 된다.

한·EU FTA 추가의정서는 올해 3월 25일 정식 서명되었으며, 최근 양국은 잠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5월 26일 잠정 발효시키는데 합의한 것이다. 추가의정서는 향후 정식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잠정 발효와 정식 발효의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식발효를 위한 별도의 국내절차는 불필요하다(2014년 4월 29일 국회 비준 안료).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0여 개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추진위원



운, 국내 규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별 규범이 논의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5월 TPP 각료회의(5월 19~20일) 등 최근 TPP 협상동향 및 제2차 예비 양자 협의, 국회(통상대책특위) 주관의 TPP 공청회 등 그간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TPP 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향후 TPP 심층 영향분석 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한·베트남 FTA 제5차 협상 개최

한·베트남 FTA 제5차 협상이 5월 20~2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베트남측은 부 휘손(Bui Huy Son)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차장(前 아세안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 협력 등 각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베트남은 우리의 아세안 주요 교역·투자 대상(2013년 기준 우리의 제9위 교역국이자 제4위 투자대상국)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한·베트남 FTA 체결 시 기존 한·아세안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투자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일본과의 FTA'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총 12개국입니다. 이들 중 9개국은 이미 한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로, 아세안에 포함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비롯해 칠레, 미국, 페루(이상 7개국)는 한국과의 FTA가 발효한 상태입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한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 상태로 발효를 위한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한국과의 협상이 중단됐던 뉴질랜드 또한 협상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일본 및 멕시코와의 양자간 FTA를 체결한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 멕시코는 거리가 멀고 한국과 주요 수출품이 경합하지 않아 기업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경합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TPP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인하폭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TPP의 개방 수준은 한·미 FTA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한국이 기존에 체결했던 FTA들의 개방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업그레이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무역 실무와 시장 선점 등 다양한 수출관련 업무들을 지원해 주는 코트라(KOTRA)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을 스낵으로 개발하고 까다로운 위생수준을 맞추어 미국으로 김을 수출하고 있는 김 전문회사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정화(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매 회마다 실리는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 등 서류작성 방법은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주희(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

애완용품은 주로 외국제품을 사용해 왔으나 국내기업의 제품이 외국제품 못지않은 품질로 수출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국내제품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애완용품의 사료, 껌, 영양제 등이 동일한 HS코드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재하(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의 제3대교 건설사가 한국기업들이란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전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세계 속에 당당히 진출한 만큼 명실상부한 기술강국의 저력을 발휘하여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몇 년 전만 해도 수입, 수출, 관세 등에 대해 큰 관심도 없었고 저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FTA'를 접한 후부터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FTA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온 국민의 관심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진철(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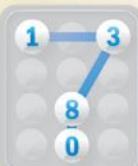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제공